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108

당신의 마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락이
쌓여가는 만큼
할머니의 아쉬움도
쌓여갑니다.

답하고 싶지만
스마트폰이 어렵기만 한
어르신들을 위해

SK텔레콤 매장에서
T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어렵지 않게 전할 수 있도록

기술은 언제나
당신을 향합니다



1 시대, 생활이 되다



T스마트폰 교실: 전국 350여개 SK텔레콤 매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주)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경영82)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에너지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형님...
너무 무서웠는데,
친절하게
진정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택배 아저씨~
무거운 것 많이
시켜 죄송해요~
화이팅 하세요~!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요리하자마자
드셔야 더 맛있는데..
나중에 방문해 주시면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요
오늘도 마스크, 손씻기
꼭 잊지 마세요!!

미소 많이 많이 드세요
의료진 여러분,
너무 멋있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회장 허진수 (경영72)



감사합니다

Anytime
Anywhere
I will take you!



M&M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

www.mmmcorp.com



대한민국 LPG E1
고객상담전화 1688-2121 www.e1orange.com

01 포인트 특권

우수회원 업계 최대 7P 적립
LPG 충전은 물론 이마트, CU, CGV에서
현금처럼 사용

02 제휴할인·적립 특권

최대 100원 할인 LPG 최강 제휴카드 6종
E1-롯데 LPG 장기렌터카
프로스펙스 상시 20% 할인

03 이벤트 특권

매 충전 때마다 터지는 행운
우수회원 100% 당첨 이벤트와
1천 포인트 특권, LPG 콘서트까지

04 스마트 특권

LPG 최초 APP 카드결제 모바일 APP
결제만으로 포인트 적립까지 원카드

오카, LPG에 특권을 더하다

E1 오렌지카드

LPG 고객님께 더 나은 혜택과 편리함을 드리기 위한
E1 오렌지카드의 다양한 특권, 꼭 누리보세요



(주)E1 대표이사 회장 구자용(무역73)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코스모 대표이사 회장 허경수 (경영75)

2020년 경영대학 교우회 주요 행사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행사명	장소
4월 23일(목)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타이헤(역삼동)
4월 25일(토) 09:00	제10회 걷기대회	취소예정
5월 13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아시안라이브
5월 말	제1학기 장학증서수여식	L-P경영관
5월 22일(금) 12시경	골프대회(전교우)	
7월 초 18:00	야구부 후원금 전달	총교우회주관장소
9월 26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참살이길
10월 14일(수)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파크하얏트 코너스톤
10월 23일(금)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타이헤(역삼동)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수여식	L-P경영관
12월 3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 코로나19의 팬데믹현상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고대인의 야성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하세요!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1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2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4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6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7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07_ 수상자 선정 회의

08_ 상임이사회

10_ 교우의 밤

20_ 올해의 교우상

25_ 회원동정

26_ 장학금

28_ interview – 장치평(경영79)
– 이상미(경영94)

36_ 회원기고 – 황인강(상학61)
– 심재중(경영70)

38_ 학번별 소식

52_ 교수칼럼 – 김동기 명예교수(상학54)

56_ 모교소식

61_ 경영대소식

64_ 회비납입명단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정몽원
편집인	오성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136-7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a@kubsa.or.kr
홈페이지	www.kubsa.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가격	3,000원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 회의



2019년 10월 10일(목) 12시 파크하얏트 코너스톤에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선정회의가 열렸다. ‘올해의 교우상’은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모교 및 경영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별한 애교심을 가진 교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학교, 교우회, 학년별 연대대표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 정몽원(경영74)교우회장/ 김재욱(경영81)경영대학장/ 김문기(경영72)교우회 상임이사 /한호석(경영74)709회장, 교우회 부회장/ 오성호(경영79)사무국장/ 장치평(경영79)교우회 부회장,

박수근(경영81)교우회 감사, 여용동(경영82)809회장, 교우회 부회장/ 정재학(무역94)교우의 밤 주최기수 대표 등이 모여 ‘2019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선정 회의를 개최하였다.

후보에 오른 17명의 교우를 각각 기업가 부문, CEO부문, 공직자부문 세부 그룹별로 나누어 심사를 했다. 그 결과 CEO 부문에 이선용(경영80,베어트리파크 대표), 박정호(경영82, SK SKBroadband대표이사), 공직자 부문에 김종양(경영81, 인터폴총재)교우를 ‘2019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2019년 하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장소 : 라이허

2019년 10월 24일(목) 18:30 연주역 인근 TAIHE에서 「2019년 하반기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오성호(경영79)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정몽원(경영74)교우회장은 “그동안 함께 해준 임원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경영대학을 향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재욱(경영85) 경영대학장의 경영대학 학사보고가

있었다. 현재 경영대학 학생 중 80%가 소득분위 9~10등급이라서, 1~8분위까지 20%의 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면학 OR DREAM Scholarship)을 받고 있으며, 학부재학생 기준 여학생비중이 50%초과, 외국인 25% 근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제인턴십 프로그램에 교우들의 협조를 요망하였다.

이어 재무현황과 2019년 사업 진행현황 및 특별사업에 관





정몽원(경영74) 교수회장



오성호(경영79) 사무국장



한상일(경영90) 교수회감사

한 보고가 있었으며, 제39회 교우의 밤 주최기수인 94학번의 준비현황에 대한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정재학 94학번 동기회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훌륭한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개정회칙을 적용하여 신입감사 선출을 추천하였으며 90학번 한상일(삼정회계법인 전무, 본부장)교우가 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명의 경영대 교수회 임원이 참석하였다.



정재학(무역94)



→ 94학번 동기회 대표





제 39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

교우의 밤

일시 2019.12.5(목) 18:20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에서

제 39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 39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원(경영74)경영대학 교우회장, 정진택(기계79)고려대학교 총장, 이양섭(상57) 명예회장, 최상영(경영69)일본교우회장, 최윤희(간호73) 여자교우회장, 김재욱(경영81)경영대학장을 비롯한 원로교수, 재직교수, 그리고 경영대학이 배출한 사회 저명인사와 600여명의 경영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몽원(경영74) 교우회장



정진택(기계79) 고려대학교 총장



장기주(영문77) 총교우회 수석부회장



김재욱(경영81) 경영대학장

교우의 밤

정몽원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인사말로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여러 단과대학 ‘교우의 밤’의 효시가 된 모범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교우들 간에 우의를 나누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또한 경영대학 교우회는 교우님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교와 경영대학의 혁신과 도약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구자열(경영72)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대신해, 장기주 수석부회장(영문77)이 축사로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모교의 발전과 후배를 위해 큰 정성을 모아주는 행사이며 더 나아가 모교의 내일을 준비하는 훌륭한 전통이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경영대학 교우들의 협조에 감사 한다”고 전했다.

정진택 총장은 “경영대학 교우님들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 경영대학장의 학사보고 및 경영대학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력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재욱 학장은 “모교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교우들의 응원과 성원을 부탁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년도 행사주최기수인 94학번에서는 95,200,000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 전년도 행사를 주관하며 경영대학 장학기금 103,560,000원을 기탁한 93학번 동기회(사무총장 최길상)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교우의 밤





한편 '올해의 교우상' 시상에는 우리나라 대외적인 활동과 폭 넓은 사회활동으로 산업,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선용(경영80) 베어트리파크 대표, 박정호(경영82)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겸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김종양(경영8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총재가 수상하였다. 또한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한 해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우 38인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2부 행사는 많은 교우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조익순 명예교수의 추모영상으로 훌륭했던 교수와 함께 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공연과 함께 만찬을 시작했다. 기술과 예술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콜라보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이후 신호섭(경영85)교우의 성악 공연과 Crimson86(86학번 밴드)의 공연으로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를 풍성하게 꾸몄다. 그리고 고대 86응원단의 응원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6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하였다.





→ 6년 연속 최다 참가 중인 79학번





행사찬조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o	성명	학번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1	이상일	57	(주)일진글로벌 회장	LG TROMM 스타일러 2대
2	이양섭	57	(주)엠에스오토텍 회장	딤채 김치냉장고 1대
3	정장호	59	마루사 회장	현금 50만원
4	엄종일	61	(주)럭스산업개발 회장	생활용품 세트 20개
5	이학수	65	(주)엘앤비 인베스트먼트 회장	상품권 200만원
6	허광수	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핑퍼터 3개
7	김영환	66	(주)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벽제VIP초대권: 운정코스 2인 식사권 2매, 봉피양 식사권 20만원권 5매
8	박성훈	66	재능그룹 회장	포켓용수첩 700개
9	허창수	67	GS그룹 회장	제주 엘리시안 4인 VIP초대권 2매 (골프2회, 1박2일 36홀골프 or 2박3일 숙박)
10	서영률	69	P.T PRATAMA ABADI INDUSTRI 대표이사 회장	현금 500만원
11	최상영	69	영스틸 대표이사	상품권 500만원
12	허정수	69	GS네오텍 회장	GS칼텍스 상품권 200만원
13	김광식	70	현대포리텍 사장	상품권 100만원
14	나완배	70	GS에너지 부회장	현금 100만원, 시집 80권
15	이재동	70	(주)전인CM 회장/삼성KPMG 고문	상품권 50만원
16	구자열	72	LS그룹 회장/총교우회장	몽벨 19FW 가이아 다운코트 5벌, LG UHD 49인치 TV 1대
17	김 윤	72	(주)삼양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LG UHD 50인치 TV 1대
18	허진수	72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회장	광고 협찬 400만원
19	강호갑	7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주)신영 대표이사 회장	상품권 150만원
20	유시호	74	원일건설 회장	현금 50만원
21	윤명상	74	(주)성주디앤디 대표이사	MCM 남성 반지갑 5개
22	정몽원	74	한라그룹 회장	광고 협찬 300만원, 제주 세인트포C.C VIP 골프패키지 이용권 2매 (1박2일간 4인기준 숙박 및 36홀의 골프장 이용혜택)
23	한호석	74	청탐산업(주) 대표이사	현금 100만원
24	김영식	75	삼일회계법인 CEO	상품권 200만원
25	안영일	75	(주)신동해홀딩스 회장	평창 그린힐 리조트 상품권 10만원권 20매

행사찬조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o	성명	학번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26	허경수	75	코스모 대표이사 회장	고급 와인(샤도네이, 피노누아) 12세트
27	박현주	78	미래에셋그룹 회장	광고 협찬 200만원
28	임영진	79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광고 협찬 200만원
29	장치평	79	경일신재생(주) 대표이사/ 중식당 타이허 대표	중식당 타이허 식사권 10만원권 10매
30	정몽진	79	(주)KCC 회장	광고 협찬 300만원
31	이선용	80	베어트리파크 대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대, 상품권 110만원
32	정몽규	80	현대산업개발(주) 회장	정선 파크로쉬 숙암 SUITE객실 3매
33	김재욱	8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2020년도 고려대학교 벽걸이 달력 750부
34	박수근	81	(주)알머스글로벌 대표이사	디어밀크 스페셜 기프트 15세트 (약200만원 상당)
35	박정원	81	두산그룹 회장	두산 두타상품권 200만원
36	이충진	81	ALGOVITAL KOREA 대표	알고비탈 화장품 10세트
37	박정호	82	SK텔레콤(주) 사장	워커힐 Grand Club Suite 4인 Package+Club Benefit 2매
38	여용동	82	다원기술금융(주) 대표이사 사장	상품권 100만원
39	황영달	85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상품권 50만원
40	정의선	89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광고 협찬 200만원
41	김평국	89	(주)디유넷 대표이사	맥주5종 100세트-체코맥주(리토벨-클래식,모라반,바이젠코니히), 영국맥주(고스트쉽), 스코틀랜드맥주(임페리얼스타우트)
42	최창규	90	(주)나무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상품권 45만원
43	한상일	90	삼정회계법인 본부장	현금 50만원
44	형윤준	90	(주)일신국제무역 대표이사	리콜라 캔디 1000개
45	전이현		MBA교우회 회장	현금 100만원
46	송인수	경제77	경제학과 교우회 회장	화환 1대
47	최윤희	간호73	여교우회 회장	파우치 50개
48	조낙양		조익순 명예교수 장남	현금 100만원
49	권익범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 대표이사	Grand Kitchen 2인 뷔페상품권 4매

* 경영대학 교우회에서는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을 위해 고급와인 1병을 선사하였습니다.



AWARDS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올해의 교우상



올해의 교우상



베어트리파크 대표 이 선 용 교우 (80학번)



이선용 교우는 경영 80학번으로 1991년 미국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인 TGI Friday's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2002년까지 22개를 운영하였다. TGI Friday's는 국내에 외식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켰고, Friday's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외식 인재를 양성하여 외식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눈 높이 서비스인 퍼피독, 다양한 고품질의 식음료 및 생일 축하 노래 등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시하여 3차례 연속으로 올해의 프랜차이즈상을 받았다.

1998년에 홍콩 HSBC Private Equity (HSBC 사모펀드)로부터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자유치를 했고, 2002년에는 롯데그룹에 TGI Friday's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였다.

그 이후 현재는 세종시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라는 수목원을 가업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베어트리파크는 50여년에 걸쳐 10만여평에 잘 가꾸어진 정원수와 분재 그리고 반달곰 100여마리가 있는 국내 최고의 수목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정원인 캐나다의 부처드 가든, 미국의 룽우드 가든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경영809 초대회장으로서 2009년부터 5년간 봉사하여 활성화 시켰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친목행사를 지원하고 809뿐만 아니라 909모임의 태동과 KUBS Ladies 출범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등 교우회 발전에 커다랗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의 교우상



SK텔레콤 사장,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박 정 호 교우
(82학번)



박정호 교우는 경영 82학번으로서, 1989년 선경그룹에 입사, SK그룹내 주요계열사를 거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대표 이사와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였다. 현재 그룹의 ICT 계열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룹 SUPLEX추구협의회 글로벌성장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그룹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박 교우가 이끌고 있는 SK텔레콤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술 진화와 고객가치혁신을 바탕으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19년 세계최초 5G상용화로 앞서가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미래변화를 주도하는 New ICT 리더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SK텔레콤의 CEO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암호기술 등 핵심 Infra기술에 대한 R&D에 집중하며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추진하여 핵심역량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업, 미디어, 보안, 커머스로 4대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강화하며 New ICT 성장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에서는 고객중심경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집중한 결과 2019년에 대한민국 3대 고객만족도조사 20년 연속 1위라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다.

한편, 신세기통신·하이닉스 등 굵직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8년에는 SK그룹의 ICT위원회위원장을 맡아 도시바 반도체 사업 투자를 진두지휘하여 그룹 내 ICT 사업의 성장 포트폴리오 재편, 대한민국의 ICT 경쟁력 글로벌 최고수준으로의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9년에는 글로벌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글로벌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특유의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 사티아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 팀 쿡 애플 CEO 등 글로벌 ICT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SK 그룹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대표
인터폴 총재
김 종 양 교우
(81학번)

김종양 교우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81학번으로 행정고등고시 29회(1985년) 합격한 후 교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91년 경찰로 특채되어 세 번의 경찰서장과 두 번의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관과 경찰청 외사국장, 기획조정관 등 참모로서의 경력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 LA총영사관 영사로의 파견 근무 등 다양한 보직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경찰관 재직 중 “업무에는 열정, 사람에게에는 겸손, 조직에는 자량”이라는 신조와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솔선수범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여 동료와 지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은 공직자의 표상이 된 교우이다.

특히, 김 교우는 국제 사회의 안전과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유일의 국가 간 치안협약체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집행위원, 부총재를 역임한데 이어 지난해인 2018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인터폴 총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선출되어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리더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1984년	김상홍(41) 삼양사 회장	2009년	최상영(69) 영스틸 대표이사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1985년	이명박(61) 현대건설 회장		김동수(74)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986년	구두회(49) 호남정유 사장	2010년	어윤대(63) KB금융지주 회장
1987년	이종원(48)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		조남호(69) 한진중공업 회장
1988년	이준범(50) 고려대학교 총장	2011년	전윤자(51) 전 숙녀협동조합
1989년	이양섭(57) 현대자동차 사장		허정수(69) GS네오텍 회장
1990년	장진호(71) 진로그룹 회장	2012년	유휘성(58) 조흥건설 사장
1991년	김희집(55) 고려대학교 총장		안덕수(64) 새누리당 국회의원
1992년	이상일(57) 일진산업 사장		나완배(70) GS에너지 부회장 겸 대표이사
1993년	이경식(53) 경제기획원 장관	2013년	승명호(74) 동화홀딩스 회장
1994년	이우영(55) 중소기업은행장		김창수(73)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1995년	김의철(62) 뉴코아 회장		이완경(73)GS EPS 대표이사
1996년	장재국(75) 한국일보 회장	2014년	문덕규(70) SK 네트워크(주) 사장
1997년	이석호(55) 주리원백화점 회장 정창호(59) LG텔레콤 부회장		추경호(79) 국무조정실 실장
1998년	남궁석(61) 삼성SDS(주) 대표이사		* 특별공로상 이충진(81) 알고비탈코리아 대표이사
1999년	유상욱(55)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정덕구(67) 산업자원부 장관	2015년	정몽원(74) 한라그룹 회장
	김기재(69)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갑(74)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2000년	이윤재(53) (주)피죤 회장		정재찬(75) 공정거래위원장
	이학수(65) (주)삼성전자 사장		* 특별공로상 장치평(79) 아스트로너지솔라코리아 대표이사
2001년	김승유(61) (주)하나은행 은행장	2016년	구자용(73) (주)E1 대표이사 회장
	김신경(65)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대표이사		이재홍(77)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2002년	배정충(65) 삼성생명보험(주) 사장		* 특별공로상 김동원(7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몽진(79) (주)금강고려화학 회장	2017년	서영률(69) PT.PRATAMA ABADI INDUSTRI 대표이사 회장
2003년	허광수(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김영식(75) 삼일회계법인 CEO
	윤진식(67) 산업자원부 장관		최종구(76) 금융위원장
2004년	오영교(66) KOTRA 사장	2018년	허경수(75) 코스모 그룹 대표이사 회장
	허창수(67) (주)GS홀딩스 회장		최수규(79)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05년	장경작(61)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장		* 특별상 경영809(단체)
	박성훈(66) (주)재능교육 회장		
2006년	유병택(63) (주)두산 대표이사 부회장		
2007년	구자훈(67) LIG손해보험(주) 회장		
	김용덕(69)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2008년	김 인(68) 삼성SDS(주) 대표이사 사장		
	김 윤(72) (주)삼양사 대표이사 회장		
	구자열(72) LS전선(주) 대표이사 부회장		

회원동정



정몽원(경영74/교우회장)

정몽원 교우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에 오를 빌더로 선정됐다.



김대철(경영77)

2019년 12월 20일 김대철 교우가 HDC현대산업개발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안병덕(경영79)

2019년 12월 9일 안병덕 교우가 위니아대우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김용현(경영80)

2019년 9월 16일 김용현 교우가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7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강신호(경영81)

2019년 12월 30일 강신호 교우가 CJ제일제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박노준(경영82)

2020년 2월 11일 박노준 교우가 안양대학교 제11대 총장에 선임되었다.



이병호(경영82)

2019년 12월 30일 이병호 교우가 산업은행 글로벌사업 부문장에 선임되었다.



이동환(경영82)

2020년 1월 5일 이동환 교우가 한국수출입은행 리스크 관리본부장에 선임되었다.



이연모(경영82)

2019년 11월 28일 이연모 교우가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사업본부장에 선임되었다.



조경식(경영82)

2020년 1월 16일 조경식 교우가 청와대디지털혁신서비스관에 선임되었다.



노석환(경영83)

2019년 12월 12일 노석환 교우가 관세청장에 임명되었다.



김창수(무역85)

2019년 12월 3일 김창수 교우가 GS칼텍스 전무로 승진하였다.



나기홍(경영85)

2020년 1월 21일 나기홍 교우가 2020년 삼성전자 정기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이종환(경영85)

2020년 1월 24일 이종환 교우가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성일(경영86)

2019년 11월 29일 김성일 교우가 디지털혁신담당 겸 현대IT&E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박종춘(경영88)

2019년 12월 5일 박종춘 교우가 JB금융지주 디지털총괄책임에 선임되었다.

교수동정



김동기(상54/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이신 김동기 명예교수가 아시아 18개국 32개 학술단체가 가입해 있는 아시아학술회의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만우 (경영73)

2020년 2월 29일 이만우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NEW BOOKS



1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자는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과 환율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열하기 보다는 환율 예측에 중점을 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현상 등으로 예측이 힘든 환율에 대하여 오랜 시간 실무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오롯이 담아 도식적인 프레임을 제시하며 통화전쟁, 환율전쟁, 환율전투 등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서술했다.

임 경(경영79) | 생각비행 | 2020.1.17

장학금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영대 선배들의 후배사랑

김근찬 장학금

- 기탁자 : 김우형(故김근창(상학40)교우 자제)
 - 수혜인원 : 전액 2~3명
- 故김근창(상학40)교우의 뜻을 기리기 위해 김근창 교우의 아들 김우형 선생이 기부하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2~3명의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문용 장학금

- 기탁자 : 이문용(경영55)
 - 수혜인원 : 200만원 2명
- 뮤지컬하우스호연재 대표인 이문용 교우가 매 학기 2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양영재단 장학금

- 기탁자 : 故김상홍(상학41/경영대교우회 초대회장/1984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 수혜인원 : 전액 2~3명
- 양영재단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생인 수당 김연수 선생이 만든 재단으로, 193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육영재단이다. 양영재단은 2006년부터 김연수 선생의 3남 故김상홍 경영대교우회 초대회장의 뜻을 받들어 경영대학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김상홍 초대회장은 '교우의 밤'의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다.

전윤자 장학금

- 기탁자 : 전윤자(상학51)
 - 수혜인원 : 전액 2명
- 최초의 경영대학 여자 교우인 전윤자 교우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경영대의 만연니와 같은 마음으로 여자 후배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소 암 장학금

- 기탁자 : 故조풍언(상학59)
 - 수혜인원 : 전액 12명
- 소암장학금은 조풍헌 교우가 애교심과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장학금이다. 본인의 어려웠던 시절 학교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시작하였으며 2005년 1학기부터 매학기 총 12명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조풍언 교우의 부인인 조덕희 회장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 장학금

- 기탁자 : 허창수(경영67/ 경영대교우회 6대 회장)
 - 수혜인원 : 전액 1명
- 허창수 경영대교우회 6대 회장이 LG 건설에 재직 당시 기탁한 장학금이다. 2005년 LG건설이 GS건설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GS건설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여하고 있다.

엠앤제이 문화복지재단 장학금

- 기탁자 : 정몽진(경영79/ 경영대 교우회 상임이사)
 - 수혜인원 : 반액 4명
- KCC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진 교우가 모교 발전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는 장학금이다. KCC장학금으로 2001년부터 매학기 4명의 학생에게 지급해왔으며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급되고 있다.

남촌 장학금

- 기탁자 : 남촌재단(경영67 허창수 (경영대교우회 6대 회장))
 - 수혜인원 : 전액 8~10명
- 평소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지니고 계셨던故남촌 허준구 GS건설의 명예회장의 뜻을 받들어 GS그룹 허창구 회장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고려대학교에 기탁한 장학금이다.

금천 장학금

- 기탁자 : 서영률(경영69/ 2017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 수혜인원 : 전액 4명
- 2017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이며, 인도네시아에서 프라타마 아바디를 설립한 서영률 교우가회사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영대학 후배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기탁한 장학금으로 2018년부터 4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치평 장학금

- 기탁자 : 장치평(경영79/ 경영대 교우회 부회장)
 - 수혜인원 : 전액 4명
- 교우의 밤 제 2회 특별공로상 수상자인 장치평 교우는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쓰이도록 기탁한 장학금이다.

Dream Scholarship 기부자

허천구(상학59) 주식회사 코삭 회장
최오길(경영61) (주)인팩 회장
김용덕(경영69) 손해보험협회 회장
구본능(경영70) 희성그룹 회장
김광식(경영70) 현대포리텍 사장
유상덕(경영79) (주)삼탄

이선용(경영80) 베어트리파크 대표
72학번 동기회
81학번 동기회
809동기회
91드림케어
92드림케어

93드림케어
기아자동차
현대차그룹
경영대교우회

장 치 평 (79학번)

2019년 11월 제1회 KU Rock Band Festival를 개최한 장치평(경영79) 준비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이 행사는 고려대학교 졸업생 중 각 동교회별로 활동하는 록밴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교에서 흥겨운 음악축제를 펼치는 행사이다.

KU Rock Band Festival에 대한 소개 및 이를 만들게 된 사연은?

KU Rock Band는 고려대를 졸업한 교우들이 학년별로팀을 구성하고 연합한 학년별 연합그룹입니다. KU Rock Band Festival은 매년 1회 연합그룹에 속한 각 팀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선보이기 위해 함께 무대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장르별 순서부터 조명,음향 등을 기획하고 상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음악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밴드음악이 좋아서, 대학 졸업 후에 조금은 늦은 나이지만 KU Rock Band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잊고, 직장, 사업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며, 오랜 시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교우들과 함께 학창 시절 좋아했던 음악을 나누고 교류하며 잠시나마 추억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우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KU Rock Band Festival 주최

2019. 11. 15(금) 19:30~22:00PM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





KU Rock Band Festival에서 가장 크게 느끼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 공연 전 과연 관객이 얼마나 올까 하는 우려에 멤버들 전체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1층 객석을 꽉 채운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공연의 시작 조명이 켜지고 웅장한 첫 사운드가 강당에 울리는 순간에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교우들이 음악을 따라하고 무대 앞까지 뛰어나와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러한 무대를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다음 공연때에도 마찬가지로 많고 많은 교우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

2회의KU Rock Band Festival을 진행하여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Festival을 준비하여 학번간 연주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학번을 뛰어넘어 장르별로 연합하여 연주할 만큼 음악적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장르별, 테마별 연합연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연주 수준이 더욱 향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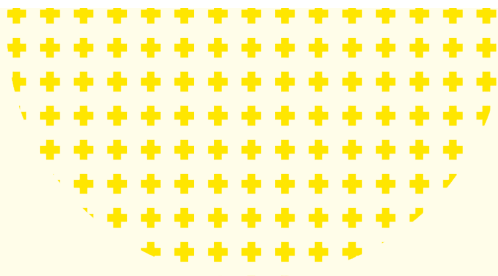
그러나 저희 KU Rock Band 및 KU Rock Band Festival에 대한 홍보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교우들이 이 Festival을 알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홍보, 광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교우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단과대별 등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KU Rock Band Festival을 함께하는 교우들이 늘어나고, 나아가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KU Rock BandFestival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학업에 정진하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배품으로써 후배사랑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님들! KU Rock Band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이제 시작을 알린 이 Festival에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말씀

“Carpe diem(카르페디엠)”이라는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현재를 잡아라’라는 뜻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과거에 발목 잡혀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한 오늘을 보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본업 외에 제가 하고 있는 본교 장학사업, 어린이재단 봉사 및 많은 영역들에는 현실에 충실하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와 다짐



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 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많은 부분이 내 편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선배님들과 교류한다면, 서로 간에 동기부여가 되고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로서, 학교 조형물인 호상 뒤쪽 기저부에는 다음과 같은 석판 명문이 있습니다.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 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이 있어
너 항상 여기에 자유의 불을 밝히고 정의의 길을 달리고
진리의 샘을 지키느니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거라 너 불타는 야망
젊은 의욕의 상징아
우주를 향한 너의 부르짖음이 민족의 소리 되어
메아리치는 곳에
너의 기개 너의 지조 너의 예지는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시인 조지훈의 글로서 저는 언제나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불타는 야망과 젊은 의욕으로 포효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선, 후배님도 이러한 민족 고대 정신을 크림슨의 심장에 새겨 자랑스러운 고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졸업생 중 각 동기회별로 활동하는 록밴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교에서 흥겨운 음악축제를 펼치는 행사인 제1회 KU Rock Band Festival를 개최한 장치평 교우는 2016년 ‘36th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서

제2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나 자란 장치평 교우의 아버지는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셨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교 후엔 자전거를 타고 자장면을 배달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우셨고, 이후 대학교 졸업식 날까지 중국집은 장 교우가 운영했다. 일찍이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먹고 사는 것이 바빠 꿈을 꿀 틈조차 없었다. 그렇게 대학 시절을 마치고 동기들은 대부분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 하였지만 외국인 신분인 장 교우는 어떤 기업에서도 원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엄청난 노력으로 (주)삼미 개발 사업본부에 입사하여 코오롱상사 홍콩법인 부지사장과 JR Development 대표이사직 및 다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업경영을 맡아왔고, 중국 4대 민간 기업인 칭트그룹의 합작사인 아스트로너지솔라코리아 대표로 12년동안 큰 기여를 하였다. 현재는 대표이사로서 근무 중이며, 주요한 사업분야로서는 해외 우드패렛 공장과 관련한 재생에너지사업과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 명예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작년까지는 본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직을 맡아 끊임없이 후학들과 함께 교류하는 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역삼동에 중식 레스토랑인 “타이허”를 오픈하고 그동안 걸어보지 않았던 분야에도 도전을 시작하였다.

– 인터뷰 경영대교우회 심수현



법무법인 화론 변호사 이 상 미(94학번)

현재 법무법인 화론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94학번 이상미 교우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상미 교우의 전문 분야는 형사법과 이혼이며
주로 송무(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주세요

고등학교 때 영화 '어류 굿맨'을 보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반했습니다. 그렇다고 법학과를 갈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재미난 일을 하는 직업이구나' 정도 생각이었죠.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입학은 했지만 결국 변호사 쪽으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2003년 합격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한 사법연수생들은 대개 판사나 검사 임관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한결 같이 변호사였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나, 범죄자 처벌이 지상과제인 검사 일 보다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의뢰인의 편에서 편파적으로 싸워주는 일이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래 일하다보니 형사사건과 이혼 사건을 가장 많이 접했고 결국 지금 저의 전문분야가 되었습니다.

경영대에서 흔하지 않은 직업인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법조인 중 경영대 출신은 서울대 외에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영학과에는 CPA를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혹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사시 준비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몰라서 오히려 겁 없이 도전한 것 같습니다.

전문직을 갖고 싶었는데, 회계가 저랑 잘 맞지 않아서 CPA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동경했던 '변호사'는 어떨까 싶어 법대에서 청강을 해봤더니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거 잘 아는 친구에게 물었죠. "CPA랑 사법시험이랑 시험과목 수가 많이 차이나?" 그랬더니 친구가 "아냐. 똑같아. 1차 6과목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민법 형법 두 과목 책만도 7권이나 된다는 걸 그 친구도 저도 몰랐지요.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는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나 이혼 사건 뿐 아니라 딱딱해 보이는 기업 간 계약 위반 사건조차도 드라마만큼 흥미진진한 사건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 또 해결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건도 매번 달라서 일에 질리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일이다보니 사람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 점이 어찌 보면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대의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론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화론은 모든 파트너 변호사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대개 형사전문은 소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영역인데, 저희는 '전관' 아닌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듯 합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고민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발굴하는 법무법인 화론만의 시스템은 다른 로펌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론은 설립 때부터 합의부 판사들처럼 '합의제 사건 해결'을 지향했고, 심도 있는 사건회의로써 언제나 더 나은 해결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사회와 법률, 법원과 수사기관의 동향 등은 씬 없이 바뀌고 있어 항상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확신이 안서는 부분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른 시각을 가진 변호사들과의 토론은 해결의 실마리를 줍니다. 이를 통해 후배 변호사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론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 일을 좋아해서 천직이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일을 좋

interview – 이상미(94학번)

아하다보니 의뢰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건에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좋은 해답도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장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먼저, 형사전문 로펌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후배 변호사들도 형사전문변호사로 키워나갈 계획이구요. 형사전문이라는 타이틀 뿐만 아니라,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 관련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 수사 및 재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환경, 의료, 지적재산, 행정 등 난이도가 높은 관련 사건들을 해결했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형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파트너 변호사들은 형사법과 함께 각 행정법, 손해배상, 이혼 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니, 후배변호사들만 잘 따라와 준다면 머잖아 문제없이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교우님과 같은 직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을 위하여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저 그런 변호사’가 아닌 ‘좋은 변호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의사가 사람의 ‘신체적’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면, 변호사는 ‘사회적’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실력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하고, 그게 바로 좋은 변호사의 조건입니다. 실력과 책임감이 없다면 실은 ‘그저 그런’이 아닌 ‘형편 없는’ 변호사입니다. 돌팔이 의사만큼 위험하니까요.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로스쿨 3년은 법을 제대로 공부하기에 빠듯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열정과 흥미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채워가며 실력 있는 변호사

로 커 나갈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법학의 융합에 좋은 변호사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누구보다도 빛나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후배들에게..

고대 경영대 선후배님들은 이미 혹은 장래에 경영자인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15년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경영자가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파트너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도 변호사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 벌어진 뒤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부디 사업하시는 선배님, 후배님들, 아내보다 남편보다 변호사를 더 가까이 두시고 수시로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티끌만한 비용으로 태산 같은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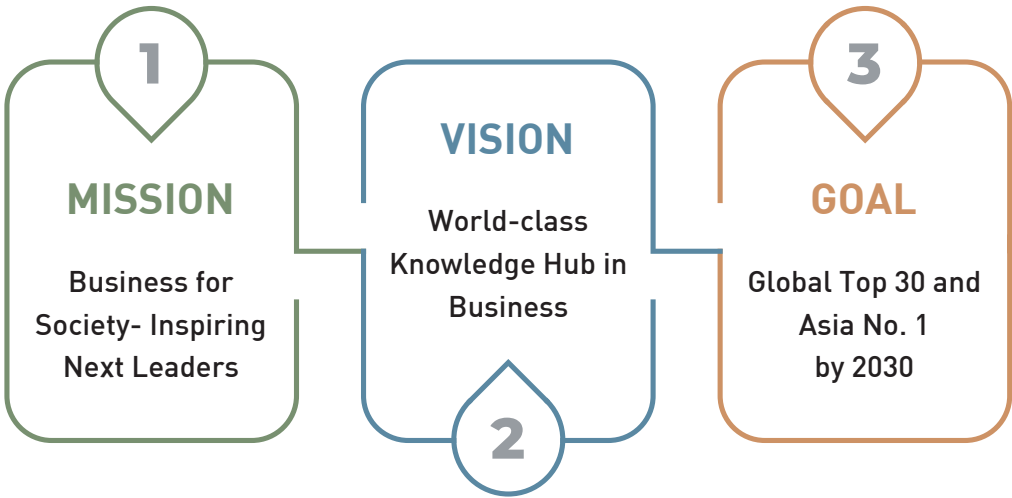
– 인터뷰 경영대교우회 심수현





KUBS Vision and Strategies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2030년까지 Global Top30,
Asia No.1 수준의 존경받는 Business School 달성



끝자락

(상학61) **춘강 황 인 강**

어느 덧, 희수의 나이를 맞이했다. 모든 것이 순간적이란 말이 실감난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아쉬웠거나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나름 뿌듯한 면도 있지만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욕망 때문인가 싶다. 묵묵히 배움의 참 뜻을 깨닫거나 기억해 두는 것을 묵지(默識)라고 했던가.

나이 탓인가.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전보다는 느려지고 희미해진다.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이때 쯤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다. 얼마 전, 기업경영과 관리에 두각을 나타내는 저명한 기업인이 쓴 묵이지지(默而識之)라는 공자의 성찰에 관한 글을 일간지에서 읽었다. 논어에 나오는 글이다. 묵묵히 자신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뜻한다. 이 해는 하지만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등 삶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묵묵히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가. 공자도 「논어」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인생이란 정해진 삶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늘 배운 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묵묵히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리라. 인생 모두가 비슷하지 않을까. 나도 칠십 평생을 배우려는 자세로 지내왔다. 배운 지식이 그때그때 사회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여 졌으리라. 세월이 흘러 어느 시점에 도달해보니 왕성한 젊음에서 멀어지고 처지는 것이 느껴진다.

최상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생각같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전과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 미리 겁을 먹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바심이다. 하지만 현실인 것을 어찌하랴. 나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찌 할 수 없지 않은가. 글쓰기만 해도 그렇다. 게을러지고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자주 일어난다. 쓰면 쓸수록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 힘을 다해 지난 세월과 비교해 뒤쳐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역시 마음뿐이다. 그러다보면 세상의 부질없는 일로 여겨져 허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글쓰기에 전력투구하는 것도 허영심이 아닌가 하는 회한에 빠지기도 한다. 하기는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명예도 재물도 목숨 같은 애듯한 사랑도 세월의 끝자락에 되놓고 가야 할 터라면 말해 무엇 하리오. 옛 성현들의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말해 무엇 하랴.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해답을 알아야 하리라.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지내는 나의 삶이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맞는데, 그렇지 못할지 않는가.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도 내려놓는 마음에 익숙했어야 하거늘, 마음대로 안 되니 이를 어찌하랴. 끝없이 지키고 채우려고만 하니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세상만사 고달프기만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아닌가. 하지만 빈손으로 와서 수많은 것을 공짜로 받으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 '자연의 변화 속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바람 공기 햇빛을 공짜로 누리고 있으니 마음곳간이 부자다.' 라고 어느 시인은 읊고 있다.

공자는 배운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실행하라고 했다. 이것은 소명일 수도 있겠고 평생을 통해 지켜야 할 대명제가 될 수도 있다. 공자가 고민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본다. "묵묵히 마음을 깨달음으로 새기며 살아가고 있냐"고. 남은 인생 명심해야 할 삶의 지표는 지키고 있는가. 오늘까지 제대로 살아 왔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글쓰기와 독서가 될 수가 있고, 굳건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 신앙생활 지키기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정신은 마음 비우며 겸손과 감사의 생활, 긍정과 배려 그리고 열정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 여러 개의 기둥이 내가 마음속에 새길 묵이지지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다. 나는 황희 정승의 후손으로 열정과 봉사의 그 DNA를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 붓고 싶다.

이음쇠 타령

(경영70/경영대교우회 (전)수석부회장/한국문인협회 상벌제도위 위원) 심재중



가세 가세
이 길로 가세

이 세상, 그 누가 있어
이상(理想)만인가
실용(實用)만인가

사리(事理)를 좇아도
도움이 되어야 하며
도움이 되어도
이치에 맞아야 하느니

합리와 실용, 실용과 합리
그 안에
우리의 앞 길 있을 터

너와 나, 우리 모두
같이 가야 할 길
길잡이 인 것을

이 길로 가면
당할 자
뉘 있을까

그 길 따라
이어 이어 가세

이 길이야 말로
가야 할
우렁찬 우리들의 행진곡

가세 가세
우리 모두
이 길로 가세

산마루 넘고 넘어
태산준령 넘어서 가세

○ 학년별 소식

56 (회장 이연상 / 총무 변동수)

정기총회 및 송년회 ...

56학번 동기회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2019년 12월 18일 12시 30분부터 매월 월례회 모임을 갖는 장소인 약수동 춘천막국수 집에서 개최되었다. 예년 수준인 19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인사 및 경과보고를 한 뒤 지난 1년간의 결산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식순에 따라 내년부터 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개선의 의제를 상정하며 현 집행부가 지난 6년간이나 재임을 했으니 이번에는 꼭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참석 동기들 모두가 현 집행부의 계속 유임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하는 수 없이 현 집행부가 1년 더 연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어서 이어진 송년 오찬을 즐기며 학창시절의 재미있었던 이야기와 최근의 동기들의 안부와 동정을 서로 전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나 화두의 주제는 항상 건강관리에 대한 화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양인환, 이종순, 최종해 동기가 전에 없이 많은 찬조금을 회사해 주어 지난 수십 년간 매년 받아오던 참가회비(연회비)를 올해는 받지 않고 회식비를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을 동기회 운영기금에 증액시켰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어 다음 달에도 지속되는 모임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매년 총회 때마다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애교심을 복돋우는 교호 '입실렌티 체이츨...'을 외치며 해산했다. 헤어질 때는 이종순 동기가 기증한 자사의 2020년 다이어리와 캘린더를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 갖고 귀갓길에 올랐다.



막수회 모임 ...

70년대부터 시작하여 매월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경영56 월례회가 지난 2019년에도 정기총회가 있는 12월을 뺀 11번의 모임을 추어나 더우나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 연인원 87명이 참석해서 동기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 가졌다. 안타까운 것은 동기들의 연령이 80대 중반에 이르고 보니 평소에 열심히 참여하던 동기들의 일부가 외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타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연락 없이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해서 '막수회'라고 지칭하는 월례회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들이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올해에도 많은 동기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동기회 총회 및 송년모임 ...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17시
- 장소 : 논현동 취영루

2019 동기회 총회 및 송년모임이 동기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우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동기회의 각종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동기들의 친목증진에 힘썼으며, 입학 60주년과 동기들의 팔순을 앞두고 특별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발표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오늘 총회와 송년모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시균 후임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게 됨에 따라 입학 60주년 행사와 동기들의 팔순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동기회 회장단 모임 ...

-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 장소 : 9호선 삼성중앙역 앞 해초록

정시균 회장 초청 동기회 소모임 회장단 모임을 '해초록'에서 갖고, 금년도 각종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라 금년도 5월 및 12월 행사는 오찬으로 하되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동기회 문집 제작, 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동기회 명부 점검 그리고 입학 60주년 및 동기들의 팔순 행사계획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백두산 등반계획은 사목회에서 주관하여 자체행사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호비회 정시균(회장), 이월회 성영일, 초암회 이복성, 도암회 김 실, 사목회 박인우, 여학우회 최민재(감사), 광암회 이채영(총무), 엄무성 감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월회 소식

짙수달 둘째 월요일 12시 30분에 만나는 이월회는 2019년 10월 14일 14명 그리고 12월 9일 송년모임에는 16명이 양재역 5번 출구 앞 '소잡는 날'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한해를 보내는 소회를 나누었다. 모임 식대는 2명씩 순번제로 부담하고 있다. 성영일 회장 외 김우찬, 이병우, 박성학, 왕규철, 정시균, 김순구, 채갑병, 박인우, 정희교, 엄종일, 이복성, 이채영, 이준원, 김중홍, 김지균, 김근도, 김문웅, 김윤장 동기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 2월 10일 모임은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되고, 4월 모임은 상황이 개선되면 만나기로 하였다.

광암회 소식

홀수달 둘째 화요일 역삼역 '참배나무골'에서 12시에 만나는 광암회는 2019년 9월 10일 정례모임은 추석연휴로 취소되었으며, 11월 12일에는 16명이, 2020년 1월 14일에는 18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으며, 이날 오찬은 김윤장 동기가 부담하였다. 이채영 회장 외 김우찬, 이병우, 김순구, 김문웅, 김승현,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승현, 김은동, 김윤장, 민병직, 박수죽, 박인우, 박광옥, 박성학, 엄무성, 이경순, 이창웅, 이근창, 이병우, 이정남, 이준웅, 양재광, 장경작, 정시균,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 흥,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 35명이 참석하였다. 3월 10일 정례모임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하였다.



사목회 소식

매월 넷째 목요일 만나 서울 주변 둘레길을 걷고있는 사목회는 2019년 10월 24일 인왕산 숲길, 11월 28일 난지도 하늘공원 과 평화공원 등을 걸었고, 12월과 1월 휴한기는 쉬고, 2월 이후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쉬고 있으며, 박광옥, 김문웅 동기 등이 오찬을 제공 했다. 박인우 사목회 회장을 비롯한 김문웅, 김순구, 김병수, 김근도, 김택원, 민병직, 민병훈, 박광옥, 박무용, 박수죽, 박원우, 박진자, 엄무성, 윤종완, 이근태, 이경순, 이원태, 이창웅 이채영, 정홍진, 조승자, 최민자, 최 섭, 하준기 등 25명이 함께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초암회 소식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만나는 초암회는 2019년 11월 19일, 2020년 1월 21일에 반포동 '산들해 한정식'에서 이복성 초암회 회장 외 동기 19명이 정례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졌으며, 모임의 오찬비는 연초에 연회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복성 회장을 비롯한 강승열, 구중서, 김성희, 김연채, 라석균, 박성현, 성규진, 양재광, 안희민, 이복성, 이정남, 조일규, 전춘옥, 정기성, 정의철,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의 동기들이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도암회 소식

매월 셋째 금요일에 만나는 도암회는 2019년 9월 20일, 10월 18일, 11월 15일, 2020년 1월 17일 여의도 리버타워 빌딩 2층 '봉평 막국수 한우집'에서, 김 실 회장을 비롯한 김홍곤, 김도민, 김윤장, 박광동, 박광근, 박윤서, 서진석, 이준웅, 이채영, 조방래, 채규학, 최 흥 등 13명의 동기들이 불고기예 막걸리를 기울이며, 왕년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기들의 노익장을 과시했다.



불자회 소식

홀수달 셋째 일요일 전국사찰순례를 다니는 불자모임에서는 2019년 11월 17일 양양의 낙산사를 스님의 안내로 돌아보고 공양을 함께한 후,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귀한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찰순례에는 엄무성 부부, 최민자 모자, 박수죽 부부, 박진자, 김순구, 김택원, 박인우, 이병우, 이근태, 이채영, 정홍진, 조승자 동기 등이 동참하여 불심을 키우고 있다.



○ 학년별 소식

실버회 소식 ...

실버회 동기들은 월 1회 부정기 식사모임을 갖고 때로는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는데 광주에서 박준성 전 회장, 김정자 감사 상경 시에도 만남을 갖고 있다. 2019년 12월 17일에는 파주로 이사 온 박인우 동기 환영회, 12월 31일에는 김순구 동기를 격려하는 모임을 각각 가졌다. 이들 모임에는 김문웅, 김순구, 김정자, 박수죽, 박인우, 박준성, 박진자, 최민자, 엄무성, 이견태, 이원태, 이채영, 하준기 등이 참석하고 있다.



62 (회장 김효명 / 총무 한상욱)

62학번 정기총회 ...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후5시
- 장소 : 양재 엘타워 디오디아

62학번 동기들은 엘타워 디오디아에서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동기와 동기들의 부안을 포함하여 45명이 참석하였다. 송년회 뒤풀이로 권동욱 동기의 클라리넷 연주와 김병건 동기, 송준일 동기의 노래를 들으면서 기해년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신임회장에 김효명 동기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사무총장에 한상욱 동기가 연임되었다.



회장 김효명



요산회 시무식 ...

-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 장소 : 종로3가 근처

62학번 동기들은 2019년 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62학번 등산모임인 요산회 경자년 시무식을 김효명 회장을 포함한 16명의 동기들과 함께 고기집에서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금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산행을 하자고 다짐을 하였다.



64 (회장 김윤호 / 사무총장 박태웅 / 감사 안덕수)

64등산회 9월 모임 ...

- 일시 : 2019년 9월 29일(일) 오전 10시
- 참가인원 : 15명

산을 배우고 산을 닦으며 하나가 되고자 모인 고대경영 64등산회는 1999년 4월에 결성되어 20여 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되어온 등산회로서 명실공히 '동기간의 만남의場'이 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모여 전국 유명산을 두루 돌아보고 있다. 8월, 9월에는 안산자락길을 거닐면서 우리들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의견들을 열정적으로 토로하며 그간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의 건강도 챙기는 뜻 깊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사진은 메타세콰이어 광장에서의 모습이다.



64학번 골프회 납회모임 (골프회장 : 김동훈) ...

-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 장소 : 아리지CC

11월 아리지CC는 제법 쌀쌀해서 그동안 시니어 티에서 조재복, 김춘식 두 사람의 에이 지 슈터가 나왔었지만 당일은 스코어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다. 어쩌다 실수(?)로 퍽 없이 멀리 날아가는 드라이버 샷에 본인과 동반자의 입이 벌어지고, 이따금 칩인 샷에 탄성과 질투심이 함께했다. 멀리간은 후하게 써도 되는 것이라 함께한 동기들의 넉넉한 마음씨가 싸늘해진 골프장을 훈훈하게 데워주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공을 칠 수 있을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니 운동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라운드 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박희갑, 이강훈, 이용규, 이석훈, 신방호, 박재길, 허석도, 김순배, 장한기, 안상철, 안덕수, 김덕명, 조재복, 김장수, 김동훈 이상 15명이 참가하여 납회경기를 하였으며 2020년 골프회 회장으로 추대된 허석도 동기에게 골프회기를 전달하였다.



64학번 등산모임 (등산회장 : 이경희) ...

- 일시 : 2019년 12월 29일(일)
- 장소 : 안산자락길

산을 배우고 산을 닦으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모인 경영64 등산회 16명의 동기들은 겨울이라도 포근하기만 한 안산 자락을 찾았다. 연세대 뒷산인 나지막한 동산으로 내려오면서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가 있었던 역사박물관을 지나 음식점에 도착했다. 갈비 뭉치가 그릇 가득히 쌓여서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가성비 높은 갈비탕과 막걸리로 연말 망년 산행 뒤풀이에서 파안대소로 떠들면서 2020년 새로 등산회장을 맡게 된 김동훈 동기가 20년간 등산회 자료를 카페에 집대성한 역작, 「고대경영 64'등산회 20년의 흔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매년 두 차례 - 봄·가을 테마 등산 중 백두산 북벽을 겁 없이 걸어서 천지까지 올라 거룩하고 장대한 천지를 접하면서 천지의 물을 떠서 세수하고, 일행 중 당시 등산회장 이용규, 고병선 성기남 동기들 셋이 깎아지른 듯한 500M가 넘는 돌너덜과 자갈 무더기에 미끄러지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남은 8명은 장백폭포를 끼고 내려와 지프차를 타고 정상에 도착. 합류한 일행은 중국군인 기상대 막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천지에서 잡았다는 산천어 민물고기 화와 매운탕으로 백두산 철쭉술과 함께 즐긴 밤의 추억이 백미였다는 등 카페 글을 모두 읽으려면 3시간을 봐야 한다는 방대한 양을 자료 편집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64학번 정기총회 및 송년회 낙수 ...

- 일시 : 2019년 12월 31일(화)

황금돼지해는 시작부터 요란하더니 끝나는 날 까지도 여전하다. 머스마 56명, 여자동기 13명으로 69명의 참석원은 아쉽지만 평년작 모임이 되었다. 회장, 감사, 사무총장 모두가 일일이 참석여부를 확인한 80명 참석 예상인원 중 갑자기 이런 저런 일과 겹쳐서 11명이나 불참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불편한 몸을 추스르고 재활(?)에 성공한 2019년 경영64 성기남 동기회장은 내년부터 64학번 동기회장과 경영동기회장을 맡을 김윤호 신임 회장에게 바톤을 인계하면서 감회를 털어 놓았고 신임 회장은 희망찬 새해 포부를 말해 주어서 또 한 번 기대가 되는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니 아쉬운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로 보람된 일들이 있었다. 언제 가도 우리의 꿈이 피어났었던 그리운 교정 걷기, 지훈 조동탁 은사님의 고향 탐방, 그 맑고 고운 세조길 산행과 안산자락, 대모산, 몽마르뜨 공원길, 아리지CC의 푸르렀다가 누렇게 변하는 잔디밭에서 떠들썩했던 라운딩, 검고 흰 돌들을 펼치면서 나는 정담들, 긴 큐에 초크를 칠하면서 굴러야 할 볼 코스를 머릿속에 그리는 실수를 후회해보기도 하고 짜릿한 기쁨에 터졌던 웃음소리로 다음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황금빛 돼지처럼 보냈다. 새로 집행부를 맡게 될 안덕수 감사와 박태웅 사무총장은 일당 천, 만이 되는 능력의 소유자로 선택된 것 같다. 등산회 이경희 회장은 신임 김동훈 회장을, 골프회 김동훈 회장은 신임 허석도 회장을, 기우회 신방호 회장은 신임 김순배 회장을, 당구회 김정광 회장은 신임 박일구 회장을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보다 잘할거라고 추천의 변을 남기고 신임 회장을 역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소감을 표시했다. 와인을 홀짝이면서 그동안 두어 번 걸려 참석한 박종주, 이원영 동기들의 사연도 들어보았다. 재능 기부로 무거운 악기를 휴대하고 불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송병열, 최양섭 동기는 이제는 초청하려면 거금으로 모셔야 할 정도로 세련되고 능수능란한 연주를 했으며, 빠른 템포의 흥겨운 리듬으로 여흥의 전주를 마련해서 우리 모두가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어 준 마스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박재진 동기의 지휘로 만남을 합창할 때 우연이 아닌 바람이라고 노래했고 우리는 슬픔도 기쁨도 같이 했던 친



○ 학년별 소식

구라고 외쳤다. 독창회를 가졌던 그리고 지금도 목을 다듬고 있는 박재진, 김인철의 끝없이 올라만 가는 음정은 이어지던 이태경 동기 부인 신순덕의 고운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었고, 목발까지 짚고 나와서 열창하던 최양섭 동기 부인 정진란의 정성, 두 번의 수술까지 견어내며 투병 후 회복한 김동훈 동기의 짝 이하자의 힘과 용기는 우리를 감격케 했으며 전임 동기회장 권영기 배필 영원한 교장 선생님 김귀분의 멋진 춤과 가락의 합창은 동기들을 위한 배려와 노력의 산물들이었다. 다소 숫자를 늘려 준비한 행운권 16매는 내용보다는 당첨의 작은 기쁨을 위한 것이어서 그런대로 섭섭지 않았으리라 자위하는 집행부이다. 만년 "썰작"의 대명사 최훈일 동기의 교호와 신나는 박수로 내년의 희망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2019년 총회 및 망년회를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참석인원 check와 선물 배분 준비로 문밖에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수고했던 신준철 전임 총장과 최종한 감사, 수백 번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어 편집한 박명익 동기의 노고와 협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협찬금을 기부해준 동기들에게 다시 한 번 한없고, 뜨거운 감사 말씀을 동기들을 대신해서 올린다. 경자년 새해에는 동기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들어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흩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68 (회장 김천수)

가을철 걷기 행사 ...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청계산 등산을 올림픽공원 걷기 행사로 대체함.
- 걷기코스 : 올림픽공원 일주, 약 3시간 소요
- 뒷풀이 장소 : 계절밥상 올림픽공원점
- 참가인원 : 약 30여명 참가



송년모임 ...

-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저녁 6시부터
- 장소 : 강남역 SC컨벤션센터에서

오랜만에 4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는데 그중에서도 이강봉, 이형근, 성지환, 김주희, 안상규, 서정규, 김기원, 김찬선, 박선태, 김중윤, 최정석, 신동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혁순 동기의 사회로 시작하여 푸짐한 와인과 맥주 등을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매년 그랬듯이 신동원 동기가 기념타일을 준비해 선물로 배포하였다.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경영대학 교우의 밤 ...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6시 20분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 5F
- 참석인원 : 12명
- 특기사항 : 최고경품 당첨 (최용제, 온영수 동기)
- 사진 영상 제작하여 69석영회 카페에 게시



69석영회 2019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

-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저녁 6시
- 장소 :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룸
- 참석인원 : 최상영 동기 포함 10명

69석영회 2020년 신년하례 행사 ...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12:00
-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3-13 고센농장 (늘푸른정원)
- 점심메뉴 : KBS 1박 2일 고센농장 편(12월 22일 방영)에서 극찬을 받았던 닭백숙 / 닭매운탕
- 참석인원 : 9명
- 2019 고대경영대의 밤에서 큰 상을 받았던 최용제, 운영수 동기 찬조



월례산행 ...

- 69석영회 2020산악대장 변경(2019년 12월 16일) : 운영수 동기 → 전선기 동기
- 2019년 10월 20일(월), 11월 18일(월), 2019년 12월 16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
- 2020년 1월 20일(월), 2월 17일(월), 3월 16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
- 가끔 과천 대공원역 – 대공원 산림욕장으로 산행루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74

(경영회장 조철래 / 사무총장 구자형)

30년만에 모국에 온 최예락 동기와의 만남 ...

- 일시 : 2019년 12월 14일 (토)

미국 뉴욕에서 거의 30년 만에 모국에 온 최예락 동기를 10시에 안암골 모교 정문에서 만나 고대 경영대와 캠퍼스 전체투어하고 참살이길 한식집에서 한식에 소주를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조철래 74동기회장과 한호석 74명예회장은 전화로 함께 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캐나다에서 온 이이희 동기와의 만남 ...

- 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

언제 보아도 반갑고 즐거운 동기들..며칠 전 이이희 동기가 캐나다에서 갑자기 왔다. 바로 내일 캐나다로 돌아갈 계획이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번개로 시간을 쪼개 주어 이른 저녁에 한남동에서 시간이 되는 동기 몇몇이 만나 그동안의 회포를 즐겁게 소주 한잔에 풀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헤어짐이 아쉬워 노래방에서 우리끼리 공평하게 두 세곡씩 부르고 마지막으로는 어깨동무하며 '친구여'를 함께 부르며 우리들의 우정을 함께 나누었다. 추운겨울이지만 훈훈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이희 동기가 동�회 운영비에 보태라고 200불을 선뜻 내주어 우리의 모임을 더욱 훈훈하게 했다. 아무쪼록 캐나다에 잘 가고 또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77

(회장 이재홍 / 총무 임태수)

등산모임 ...

- 2월 15일 우면산 둘레길 산행 : 1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겨울산행을 즐겼다.
- 3월 21일 청계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외중에도 산행은 밀접접촉이 없고 야외라서 집에만 있는 것보단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강행할 예정이다.

점심모임 ...

- 강남 점심모임 : 1월 22일 15명이 참여, 2월 19일 14명이 참여
- 강북 점심모임 : 1월 8일 21명이 참여, 2월 5일 11명이 참여
- 3월 점심모임은 코로나 19의 창궐로 실내모임은 취소하였다.

79 (회장 서학석 / 총무 오성호)

10월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18:30
- 장소 : 중식당 타이허(79장치명 동기가 운영)

지금부터 연말까지 많은 행사들이 진행된다. 이번 주만 해도 우리의 정기모임, 입학40주년 모교방문축제, 주말에는 산악회의 등반모임, 낚회골프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12월에는 경영대학 교우의 밤과 경영79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경사들이 사이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지난 8월말 회갑여행을 다녀온 결과 보고와 함께 도움을 준 동기들에게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서학석 회장과 조청명 동기를 비롯하여 정몽진(KCC 회장), 정운창(해창재단 이사장), 신동익(메가마트 부회장), 이주배(한국폴로클럽 대표), 장치명, 김석호 동기 등 도움 준 여러 동기들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린다. 또한 최계수 동기가 보내준 멋진 골프우산은 참석자 전원이 나누어 가졌고, 서유창 동기가 가져온 여성용 화장품도 골고루 나누었다. 이번 입학40주년 모교방문축제에는 우리 동기가 총장(정진택, 79기계)인 관계로 여러모로 신경 쓰는 행사여서인지 정몽진 1억, 신동익 2000만, 유상덕(삼탄그룹 회장) 1,000만원 등의 큰 금액모금과 더불어 서학석 회장이 다이슨 무선청소기 2대를 기부하고, 서유창 동기가 화장품을 기부하였다. 전달을 받은 황일운 고문(전 79전체동기회장)이 나서서 감사인사를 대신하였다. 모두에게 즐거운 행사로써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한다. 최근 태양광 사업으로 진출하여 잠재적인 성장을 갈구하는 김덕년 동기의 사업소개가 있었고, 터키에서 여행사업을 하는 신현길 동기의 안전한 터키여행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쇄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강영순 동기의 자기근황에 관한 발언이 있었고, 11월 둘째 주에 있는 자녀결혼에 대하여 문봉성 동기의 초청 발언이 있었고, 입학40주년 모교방문행사 글로벌위원장으로서 수고하고 있는 노철 동기의 행사소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학석 회장은 앞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지구촌에 살면서 버킷리스트에 있는 트레킹 코스들을 하나둘씩 경험하고 즐기며 건배사를 나누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입학40주년 모교방문축제 ...

-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18:30~22:30
- 장소 : 녹지캠퍼스 내 화정체육관

모교총장(정진택, 79기계)의 초청형식으로 개최된 입학40주년 모교 방문 축제(준비위원장: 오세훈, 사무총장: 이영훈)가 있었다. 500여명이 넘는 79학번 동기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체력에 많은 한계를 보이기도 했으나 마치 40년 전의 패기와 열기와 정열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움의 끝은 없었다. 이 행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정몽진 KCC 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유상덕 삼탄그룹 회장, 서학석 동기회장 그리고 모금에 참여해준 많은 동기들이 있었기에 모교와 교우회에 많은 장학금과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참으로 고대다운 행사였으며 경영79에서 수고하여준 황일운 고문과 노철 글로벌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향후에 있을 50주년행사를 기대해본다.



79경영골프회(79KUPGA)의 낚회골프 ...

- 일시 : 2019년 10월 27일(일) 12:08~17:50
- 장소 : 일동레이크(포천 소재)

더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품은 명문 골프장인 일동CC에서 2019년 가을을 만끽하며 백구의 향연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KUPGA행사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대회가 되었다.



7팀 28명이 한자리에 모여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간단히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몸을 푼 후, 출발코스의 퍼팅연습장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나서 플레이를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천고마비가 실감나는 화창하고 시원한 날씨에 노랗게 익어가는 잔디 위를 거닐며 우리들의 우정을 쌓아 나갔다. 임기를 마치는 골프회장단(회장: 한병로, 사무총장: 김정관)의 노고에 힘입어 즐거웠던 2년에 대한 기억이 새로웠다. 차기회장은 서동린 동기가 맡기로 했다. 바벨 때는 주위에서 서로 도와주기로 했다. 오랜만에 출전한 임영진 동기(신한카드 사장)는 오대산 쌀 1포와 신한 동해오픈 기념우산을 28명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역시 저녁식사는 신동익 동기(메가마트 부회장)가 맡아서 계산해주었다. 처음 합류한 양원목, 근 7년 만에 귀국하여 합류한 원상희, 아직도 바빠 일하느라 겨우 참석한 안병덕 동기의 인사가 이어졌다. 또한 최근에 직장에서 퇴사한 강석모, 정춘돌 동기가 인사를 나누었고, 전임회장인 김진호, 임영진 동기도 함께 인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에 동참하였다.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니어리스트: 서동린, 롱기스트: 서학석, 메달리스트: 한병로, 우승: 임진규

2019 송년모임 ...

- 일시 : 2019년 12월 30일(월) 18:30
- 장소 : 중식당 타이허(79장치평 동기가 운영)

지난번 제39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 56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여 550명이 모이는 자리에 10%이상을 차지한 전례를 만들고서 오늘 2019년도를 정리하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서학석 회장은 "한 시간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하루가 즐거우려면 새 차를 사고, 일주일 즐거우려면 새집을 사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일 년이 즐거우려면...평생이 즐거우려면 좋은 친구랑 어울리라."는 말이 있다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친구가 되자는 건배사를 하였다. 또 '용서란 힘 있는 자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힘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자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올해 있었던 입학40주년 모교 방문 축제와 1차 회갑기념 여수여행에 많은 찬조와 기여로 동기들을 기쁘게 해 준 정몽진 동기에게 작고 예쁜 호랑이 인형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신한카드 사장을 연임하게 된 임영진 동기는 감사인사와 더불어 맛있고 귀한 떡을 인원수에 맞춰 준비해 와서 모임에 참석한 동기들과 나누며 함께 즐겼다. 경영대 교우의 밤에 최다참가상으로 받은 50"TV 1대는 오성호 사무총장에게 주는 것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최근 '순수와 열정'의 첫 전시회를 가진 송상호(경희대교수)화백의 프로를 넘어서는 멋진 작품전시회 상황을 간단히 전달하였다. 최근 딸을 결혼시킨 이재우 동기의 감사인사와 내년 1월 4일에 아들을 결혼시킬 김성태 동기의 인사말씀도 이어졌다. 정몽진 동기는 근황인사 겸 긴 사설에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나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신임 골프회장이 된 서동린 동기의 인사말씀과 FC79 경영(축구회)을 끌고나갈 이상현 동기의 포부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79동기회 전임회장이자 현재 고문인 황일운 동기는 40주년 모교 방문 축제 준비와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멘트로 모임을 정리하였다. 이날 비용은 타이허 대표인 장치평 동기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계산해주었으며 오성호 사무총장은 준비해온 고대 캘린더와 평창파인힐리조트 사용권을 원하는 동기들에게 선사하였다. 이렇게 우리 79 경영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80 (회장 신창윤 / 총무 이봉기)

가을음악회 관람 ...

-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오후 8시
- 장소 : 롯데 콘서트홀

올해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수지오페라단의 오페라 <카르멘> 갈라콘서트에 총 7명의 동기 및 배우자가 참석하였다. 음악회 전에 부부동반으로 저녁을 같이 하고 콘서트 감상 후 호프파티를 가지면서 동기들 간의 우정과 건강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골프회 모임 ...

- 2019년 11월 3일(화) 청평 마이다스밸리CC에서 부부 골프 모임을 남회경기 겸하여 개최 하였으며 5팀 20명이 참석하여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아울러 11월 19일(화) 지산CC에서 마지막 월례회를 진행하였으며 16명의 동기들이 참가하여 골프로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 2020년에는 매월 청평 마이다스밸리CC에서 월례회와 부부골프모임을 번갈아 개최 하여 우정과 애정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 학년별 소식

2019 송년회 개최 ...

2019년 12월 5일(목) 저녁 6시 20분에 열린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26명의 동기들이 참가하여 이선용 동기의 '2019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을 축하하고 이어서 주변의 호프집 '와바 삼성1호점'에서 송년회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2020 신년회 개최 ...

-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통통낙지마을

올해 신년회는 정현진 동기가 자신이 운영하는 판교의 통통낙지마을로 동기들을 초청하여 맛있는 소고기 등심과 생태찌개, 낙지볶음을 대접하는 자리를 겸하여 개최하였다. 총 28명의 동기와 부인들이 '코로나19' 광풍을 뚫고 참가하여 입학 40주년이 되는 2020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어보자며 뜻을 모았다.



호산회 ...

호산회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는 매월 정기산행을 이어가며 동기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2019년 11월 2일(토)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32명의 동기와 배우자가 오대산 선재길을 등반하면서 오대산의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산채나물과 막걸리로 건강과 영원한 우정을 기원하였다. 12월 14일(토) 서울둘레길 4-2코스, 1월 11일(토) 안산둘레길, 2월 15일(토) 남산둘레길을 걸었으며 매월 1회 정기 산행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81 (회장 김현수 / 사무총장 신동훈)

신년 하례회 ...

- 일시 : 2020년 1월 30일(목) 저녁 6시 반
 - 장소 : LG-POSCO관 6층 안영일 홀
 - 참여한 동기들 : 김상운, 김연수, 김영민, 김용철, 김재욱, 김종양, 김현수, 노명환, 노영훈, 박수근, 박종호, 박준보, 박진우, 박찬원, 박학래, 백종일, 복진선, 송영섭, 신동훈, 오배록, 우동석, 유정준, 이석원, 정재섭, 정희찬, 최효성, 허영택, 홍흥석, 황승하
- 김재욱 학장이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현수 회장 제안으로 김재욱 학장이 Dream Scholarship을 소개하여 현장에서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참석 못한 동기들 중 송재현 동기 외 27명이 본 장학금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하여 총 8,000만원 이상이 약정되었다.



84 (경영회장 윤영원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 팔사랑 : 추계 골프대회 ...

- 일시 : 2019년 10월 6일(일)
- 장소 : 안성 파인크리크CC

2019년은 84학번의 일요골프회를 3월과 10월에 경영대학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84학번의 다른 학과 교우들도 참여하였다. 총 36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동기들의 후원으로 참가자들은 푸짐한 상품과 참가 기념품을 갖고 귀가하였다. 다른 학과에서 참석한 교우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원활한 진행, 푸짐한 참가자 선물 등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타과 교우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성원하기도 하였다.



경영84 팔사랑 : 가을산행 ...

- 일시 : 2019년 10월 19일(토)
- 장소 : 북한산

가을 산행 코스를 북한산 영봉으로 잡았다. 김홍석 팔사랑 산악회장은 인수봉도 가까이 볼 수 있고, 도봉산도 조망할 수 있는 코스를 설정하였다. 84학번의 다른 학과를 포함한 16명의 교우는 용덕사, 육모정, 영봉, 하루재, 백원대 2공원을 거치는 코스를 걸으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북한산의 경치를 즐겼다.



경영84 팔사랑 : 2019년 총회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 장소 : 타이허

팔사랑 정기총회는 통상 회계 결산 보고와 소모임 활동 보고, 교우 간 소식 공유로 진행되었다. 11월 27일 팔사랑 정기총회는 콘텐츠의 변화가 생겼다. 윤영원 팔사랑 회장은 남택진 교우가 클래식 기타를, 박호준 교우가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팔사랑 총회에 연주를 의뢰했다. 두 명 모두 아직 공연할 정도는 아니지만 흔쾌히 수락, 연습을 했다. 남택진 교우는 84학번 크림슨 밴드의 싱어인 지난영 교우(영어교육과)를 초청하였다. 3명의 공연은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참석한 교우들은 팔사랑 총회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귀가길도 남택진 교우의 현금 협찬, 이용훈 교우의 떡 선물 세트, 윤영원 회장의 문경 사과(박병석 교우가 재배), 김민태 교우의 양말 세트 등 양손이 푸짐하였다. 지난영 교우는 딱딱할 수 있는 총회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팔사랑 분위기가 좋다며 명예 팔사랑 입회를 수락하기도 하였다.



86

(회장 정경모 / 총무 이염무)

골프회 소식 ...

- 일시 : 2019년 10월 20일(일)
- 장소 : 큐로경기CC

86골프회의 가장 큰 행사인 골프회장배 골프대회를 청명한 날씨에 6팀 25명의 동기가 모여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신설된 코스가 어려워 백돌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그늘집의 서비스 안주와 막걸리로 충분히 위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가한 대부분의 동기들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상 기회를 만든 운영진의 배려와 상품 협찬에 도움 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즐거운 라운딩과 시상식을 잘 마무리 하였다.



2019 송년회 ...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 장소 : 호텔 뉴브

대망의 2019년 송년회를 선릉로 부근의 호텔 뉴브에서 개최하였다. 바쁜 일정으로 골프회나 등산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동기들도 많이 참석하여 1년을 마무리하는 즐겁고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각 분과별로 2019년 동향 보고 및 2020년 계획을 동기들에게 설명한 후 86응원단 교우들의 도움으로 응원가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자리를 가졌다.



○ 학년별 소식

마루회 소식(86동기회 등산회) ...

- 일시 : 2020년 1월 4일(토)
- 장소 : 청계산

청계산에서 신년 산행을 시작으로 경영86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다. 가장 추운 1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따스한 햇살과 기온 속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고나서 마루회 집행부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였다. 2019년에 계획했다가 무산된 홍콩 트레킹에 대해 다시 한 번 도전 할 것을 약속하며 신년 산행을 마무리 하였다.



87 (무역회장 한용선 / 무역총무 구 본)

2019년 송년모임 ...

서울 강남의 옛 추억을 떠올릴만한 선술집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역학과 87학번 동기회를 이끌고 갈 차기회장을 뽑았다. 차기회장은 한용선 동기와 차기총무는 구 본(유임)동기가 맡아서 수고해주기로 하였다. 골프회장은 김대익 동기에서 강대호 동기로 정했다. 그동안 수고해준 동기들과 앞으로 수고해줄 동기들을 위해 큰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2020년 봄 MT는 이원오 동기가 맡아서 이색적인 행사로 이끌 것을 다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동기회를 위해 수고해주고 연락해준 숨은 공신 이정근 동기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무역87동기들 이어!!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자고!!!



88 (회장 박진영 / 총무 김병오)

88학번 총동기회 정기총회 ...

88학번 총동기회는 2020년을 총동기회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연회비 납부 및 비즈니스 포럼 출범 등 다양한 정책을 세웠으며, 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위원장으로 정우영 동기를 선임하였다. 또한 11개 동호회와 3개의 지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서정훈 동기를 총동기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서정훈 동기는 88학번 올리비아 합창단 단장을 2년째 연임하고 있으며 더 많은 동기들이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 및 영화 동호회 등 새로운 동호회 추가 발족에 힘을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709 회장 한호석(경영74) / 총무 구자형(경영74)

경영709 송년모임 ...

•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 장소 : 광화문 일품당

경영709 송년모임을 조촐하게 가졌다. 올해 들어 동기회장들이 많이 변경되고 참석이 저조하여 앞으로 709모임의 향후 존속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김영만 전 73동기회 회장, 한호석 회장과 구자형 총무, 홍 승 78동기회 회장이 모였다. 당초 참석하겠다고 연락 주었던 임태수 77학번 동기회 총무는 갑자기 일정이 생겨 참석치 못했다. 함께 현실적인 입장들을 서로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의견들을 취합해보면 (1)앞으로 분기별로 점심 또는 저녁으로 모이고 (2)709모임의 부회장을 선출하여 회장을 도와주며 차기회장도 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져, 홍 승 78학번 동기회 회장을 709부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으며 당분간 한호석 회장과 구자형 총무체제로 가되 총무가 현 70년대 회장들에게 연락하고 경영대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거나 709모임의 발전을 위해 각 70학번대 동기회장 과 총무의 참석을 권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0년도 모임은 3월 9일 저녁에 광화문 일품당에서 하기로 하였다.



809 회장 여용동(경영82) / 총무 권태우(경영85)

809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 ...

고대경영809의 골프대회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9회 809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가 화창한 가을하늘아래 개최되었다. 지난 8년간의 대회에서는 80학번 3차례, 81학번 3차례, 86학번 2차례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9번째 대회의 주인공은 어느 학번인지 100여명의 809회원들의 관심 속에 각 학번을 대표하는 10팀 40명이 모였다.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왕관 쓴 호랑이를 심벌로 채택한 이번 대회 현수막 아래 80학번부터 89학번까지 화기에애하지만 치열한 대회를 치렀다. 이번 809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의 특이한 점은 2가지 드레스코드였다. 우선 골프복장은 올봄 치러진 흑호·백호 대항 809타이거컵 우승팀인 흑호팀에 대한 예우를 위해 전원이 검정티 셔츠입고 참가하였다. 그리고 조명제 골프회장(82)의 제안으로 지난 두화점에서 결의된 809 유니폼인 크림스 자켓을 만찬복으로 입기로 하였다. 지정된 청담동 양복점으로 809교우들이 각자 방문하여 자신만의 사이즈로 자켓을 맞추고 이날 처음 단체로 착용하였는데, 향후 809주요행사에는 809교우들이 모두 착용하게 된다. 이번 골프대회가 40명 전원이 번거로운 일을 기꺼이 마치고 모두 착용을 한 첫 행사였다. 골프대회는 언제나처럼 809골프부의 세심한 배려가 여기저기에 돋보인 잘 준비된 모임이었다. 골프대회 후 만찬장에서 이번 40인 단체 크림스 자켓 아이디어를 제안한 조명제 골프회장님 인사말씀 중 “809가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입을 줄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에 모두 폭소와 박수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부터 가입한 신입 회원 김형태(82) 교우와 김상표(89)교우의 착복식이 이어졌고(9년 전통 809에 새로운 의식이 추가되다.), 특히 박노준 교우가 협찬한 ‘류현진 사인 야구배트’는 개인부문 메달리스를 한 원규식(86) 교우가 차지하였고 우승은 같은 학번 문호규(86) 교우가 차지하였다. 2019 809회장기 하이라이트인 우승학번은 86학번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여 80학번, 81학번에 이어 3차례 우승기를 들어 올리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초대 809골프회장으로 기반을 굳건하게 다진 김상연(80) 교우는 격려말씀 중에 우승한 86후배들 축하하는 의미로 거액 저녁 회식비를 쾌척하여 후배사랑의 마음을 듬뿍 보여주었다. 권태우 809사무총장이 향후 11월 1일 87학번 초대 번개행사와 11월 29일 선릉역 부근 809 송년회 일정을 소개하였고, 여용동 809회장의 감사말씀 이후에 809구호를 함께 외치고 참석자 40명 전원이 크림스 자켓을 입고 골프장 로비에서 단체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809교우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809의 저력과 자부심을 보여준 행사의 심벌 같은 사진이 되었다. 참석자 모두에게 평생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여용동 809회장님과 조명제 골프회장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푸짐한 협찬을 해 주신 809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인지 프로 - 809명예회원으로 위촉되다. ...

우리나라 최고 여자 골프 프로로서, 자신이 고대 졸업생임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는 후배 전인지 프로. 지금도 자신의 캐디백에는 1905가 선명하게 새겨져있는 모교 로고를 새기고 플레이를 한다. 미국 LPGA 중계방송 때도 그 캐디백을 보면 전인지프로의 모교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곤 한다. JTBC골프해설위원인 박 원(85)교수가 809회원인 인연으로 사랑스런 그녀와 특별한 시간을 809는 여러 차례 가진 바 있다. 특히 2015년 809송년회에는 깜짝 등장하여 함께 식사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였다. 지난주 열린 2019년 809송년회에서 참가를 희망했던 전인지 프로가 급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대신 박 원 교수가 영상통화로 연결하여 809회원들의 대화로 다시 한 번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자, 809아이디어뱅크 조명제 809골프회장(82)이 809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전인지의 809명예회원 영입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유심히 읽은 이선용 809고문(80)이 박 원 교수의 도움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급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퍼온 내용을 약간 첨언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실제 809골프회장의 단체방 카톡 내용을 박 원 교수가 읽고선 다음 주 미국으로 전지훈련 가는 전인지 프로를 급히 불러 명예 809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우선 제 크림슨 자켓을 입힌 사진과 809에게 전하는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동영상에는 내년 봄에 열릴 예정인 2020년도 809 골프회장배 흑호 · 백호 대항전에 백호팀 승리를 바란다는 멘트도 했습니다.^^ 정식 입회식은 내년에 809회원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 우리 모두 힘찬 응원해주도록 합니다.^^



2019 809송년회 ...

고대경영809는 11월 29일 밤 선릉역 부근 호텔 뉴브에서 52명의 교수들과 교수회 오성호 사무국장님, 최창규 909회장 및 909교우 등 내빈을 포함하여 60여명이 모여서 2019년 송년회를 유례없이 독특하고 성대하게 치렀다. 우선 지난 809회장이 골프대회부터 809의 유니폼으로 공식 사용된 크림슨 재킷을 드레스코드로 지정을 하고 정경모 교우(86)등이 협찬한 크림슨 나비넥타이를 당일 전원에게 나눠주었으며 최윤석 교우(87)가 제공한 모교 배지를 달아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809교우들의 복장에서부터 809만의 통일된 모습을 연출하였다. 50여명이 함께 맞춰 입은 크림슨 자켓은 809교우들에게 깊은 소속감과 동질감을 제공하였다. 단, 크림슨 재킷을 입은 교우 한명이 호텔입구로 나갔다가 발레파킹 주차요원으로 오해받은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긴 하였지만.^^ 삼삼오오 모여든 교우들은 권태우 809사무총장이 총괄 기획한 송년회 행사에 사전행사부터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매년 809송년회 때 등장하는 포토월 외에도 눈이 내리는 새로운 그림의 포토월과 유튜브에 출현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는 포토보드까지 등장하여 809교우들 간에 사진으로 추억을 담은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뷔페식사 중에 김평국 교우(89)가 제공한 주류로 건배를 하면서 상호 인사를 나눈 후 곧 공식행사로 이어졌다. 내빈소개 및 여용동 809회장(82)의 개회사, 2019년 활동 경과보고, 회계보고, 809임원단 소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현임 여용동 회장이 교우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1년 연임하는 의미 있는 결정도 하였다. 809초대회장인 이선용 고문(80)의 이멤버-리멤버-포레버라는 선배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건배사가 이어지고 이선용(80), 여용동 · 구승희 · 조명제(82), 김정호(85), 정경모(86), 최윤석(87), 김평국(89)등 본 송년회를 꾸민준 협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이 전해졌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은 못하였지만 82학번 야구선수출신 박노준 교우가 정성껏 사인해 준 야구공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9 809루키상, 최다출석상, 우정상, 우수학번상 등 1년간 809교우들의 활동에 대한 시상도 최윤석 교우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재미있게 이어졌다. 특히 JTBC골프해설위원으로 유명한 박 원 교우(85)는 즉석에서 프로골퍼 전인지 후배와 영상통화를 이어져서 교우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한 타과에서 경영대에는 귀한 여성교우가 참석하여 축하를 불러주고 응원단 공연까지 하여 이번 송년회의 분위기를 클라이맥스로 이끌어 주었다. 809특유의 크림슨 자켓에 달린 모교 배지를 단 교우들은 다 함께 교가를 부르면서 2019년 809송년회를 마무리 하였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94학번, 95학번 간담회 ...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9:00~22:00 • 장소 : 마코토 청담점
 - 참석자 : 79학번 경영대 교수회 사무국장 오성호, 90학번 909대표 최창규, 94학번 김형인, 정재학, 허기영, 95학번 민대홍, 박상호, 박용준
- 2019년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주관한 94학번 집행부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갖고 동기회 구성 및 모금전개과정, 모임 활성화에 대해 2020년 경영대학 교우의 밤 주관할 95학번 몇몇 교우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13기 신입 부원들과 함께한 <KUBS Women: Blossomed> ...

<KUBS Women: Blossomed>는 여자 교수님들의 다양한 진로를 다루어 재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코리아에서 인사부 총괄 이사로 재직 중인 김연희 교수님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카드뉴스로 담아 인사 관련 진로의 커리어와 필요한 능력 및 가치관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인터뷰는 경영학 박사이자 회계사로 재직 중인 한지명 교수님이었다. 본전공은 이과이지만 경영학을 부전공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카펠라 회계 교육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 회계 기준에 관한 공부중이며 CPA 취득 후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중 '회계기준연구원'이라는 독특한 진로를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인상 깊게 전달되었다.

10월의 Dream Concert ...

10월의 Dream Concert에는 구글 key account executive로 근무중인 최길상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는데 sales분야와 IBM, Google 등 기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의 열띤 환호와 함께 강연이 진행되었다. 삶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work'에서 성공하는 법, 외국계 기업에 관한 이야기 등 교수님이 커리어를 달성하면서 느낀 점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KUBS Ladies 7주년 기념행사 ...

11월의 KUBS Ladies는 한 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가졌다. KUBS Ladies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LG-POSCO관 안영일 홀에서 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약 백여 명의 경영대의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지난 한 해 KUBS Ladies의 활동과 7년간의 발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동안 KUBS Ladies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KUBS Ladies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곧이어 같은 달 22일, Good Evening Mentoring Program Closing 행사를 통해 한 해간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 2019년 KUBS Ladies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20년 KUBS Ladies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

- 2020년 KUBS Ladies는 신입부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14기 신입 리쿠르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리쿠르팅 완료시 총 11명의 집행부원들이 2020년의 행사들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개강이 연기되었지만 KUBS Ladies만의 시그니처 로고인 '와인잔'을 그리고 경영대 학우를 서로 지목하는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홍보 방안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KUBS Ladies는 4월 중 예정된 제7회 Good Evening Program의 Opening 행사와 1학기 Dream Concert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히 준비 중에 있다.

여러분이 회보의
주인공입니다.
It's About You.

Contact Us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회보에 신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우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회 모임이나 행사 중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행사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교수님을 알리고 싶을 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TEL 02,922,3762 E-mail kubs@kubs.or.kr

영국기자가 본 한국인의 장점과 한국의 未來像



김 동 기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고려대 명예교수(2018~현재),
전고려대 석좌교수(2008~2018)

한국에서 15년간 서울주재특파원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서울에서 外信 기자 클럽 회장을 역임한 영국인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은 최근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한국인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이런 장점들은 “한국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브린”의 메시지

한국 사람들은 조급성, 당파성, 부정부패 지나치게 유향적인 대북한정책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타민족에 비해 장점이 더 많은 민족으로서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한국인의 평균 IQ가 105를 초과하는 유일한 민족
2. 한국인의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
3. 한국인의 일 안하는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4. 한국인의 文盲率이 1% 미만인 세계 唯一국가
5. 미국과 전쟁을 해도 최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
6.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북한이 휴전중인 나라
7.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을 앞잡아 보는 유일한 나라 - 한국
8. 지하철 · 버스에 노약자 지정석이 있는 5개국 중의 한 나라
9. 정부조직에 女性部가 있는 세계의 唯一국가 → 한국
10.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의 평가가 청결, 안전성, 대고객서비스 및 定時性 면에서 세계 1위인 나라
11. 개도국, 후진국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이 세계 4위인 나라 - 한국
12. 文字 없는 나라들에게 UN이 제시한 문자가 한글인 나라
13. 세계에서 IMF 구제금융(rescue financing)을 최단기간에 상환한 유일한 나라 - 한국
14. 유럽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각종 통계중 한국여성들의 미모 순위가 1위인 나라
15. 세계여자골프대회(LPGA)에서 한국여성골프선수들이 우승을 제일 많이 한 나라
16. 세계4大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
17. 인터넷, 정보 · 통신기술(CT)이 세계 1등인 나라
18. 세계유명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 한국
19.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는 유일한 민족
20. 한국인은 세계에서 기(氣)가 제일 강한 민족(한국인들은 강대국 국민들을 가르킬때엔 놈자를 붙이는 유일한 민족 - 예 미국놈, 왜놈, 떼놈, 소련놈, 그러나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부른다. 예. 아프리카사람, 콩고사람, 인도네시아사람, 베트남사람 등)

21.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던 13년간 3,200만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36년간 지배하는 동안 32,000여명의 한국인을 학살했었다. - 중국에 비해 학살당한 한국인은 1% 정도에 불과했다.
22. 한국인들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 대해 이등 박문을 비롯한 많은 고위관리나 장군들을 저격 사살했지만 중국인은 일본지배를 받는 동안 일본 요인 암살은 한건도 없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氣가 중국인보다 1,000배 더 세다는 것을 입증한다.
23. 현재 한국정부는 일본·미국과는 대립각(對立角)을 세우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

관하는 좌파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24. 이 영국기자는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을 하게 된다”는 漢字를 남겼는데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窮則通 極則反”.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브린” 기자는 한국인은 반드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할 것이라고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김 동 기(상학54)

대한민국학술원에서 2020년 3월 26일 재적 회원 140명, 서면투표 132명 중 125명 찬성으로 '제38대 대한민국학원 회장'으로 선출(연임)되었다.

아시아 18개국 32개 학술단체가 가입해 있는 아시아학술회의 차기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모교 경영대학원장, 국제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회입니다.

이번 10월초에 배포되었던 107호 「호상」 36페이지의 칼럼 '리더의 자격'을 쓰셨던 김동기 명예교수님의 직책에 오류가 있었던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동기(대한민국학술원부회장(X) → 대한민국학술원회장(O))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회 올림

경영대 교우회와 함께 꾸는 세계 최초, **최초의 꿈** 우리가 교우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경영대 교우회와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World-class Knowledge Hub in Business



경영대 교우회와 함께 꾸는 세계 최초, 최고의 꿈
우리가 교우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Executive MBA 국내1위,
세계 27위 석권

1

27

12

300대 기업 인사 담당자
전국 경영대학 평가 12년 연속 국내 1위

4

공인회계사(CPA)시험
4년 연속 최종 합격자 배출 1위

5

Global Top EQUIS
5년 인증보유

500대 기업 CEO 국내 단일 대학 단일
학과 중 최다 배출

500

4

AACCS(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4회 연속 인증

CEMS Global Alliance의
정회원

참여형 스마트캠퍼스에서 펼쳐지는 교육의 혁신, SK미래관 준공 '지식 창출 공간'으로 대학건물에 대한 고정관념 깨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가 문명사적 대 전환기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 공간을 선보인다.”

교육의 혁신

새롭게 선보인 SK미래관은 교육의 혁신도 함께 불러올 전망이다. 동영상 강의 등을 이용해 먼저 강의를 듣고 세미나실에서는 소그룹별로 그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가는 flipped-class와 튜토리얼 제도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식 수업 뿐 아니라 개인집중실에서 자신만의 학습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주목된다. 개인집중실은 약 3.3㎡(1평) 정도의 공간으로 자기학습을 위한 몰입에 적절한 구조를 갖췄다. 106개의 랩(Lab) 및 그룹스터디룸, 113개의 캐럴(개인집중실) 등 자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며 미래 대학의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간의 혁신

2016년 11월 17일 첫 삽을 뜬 SK미래관은 오는 11월 12일(화) 오

후 2시 준공식을 갖는다. SK미래관은 연면적 27,370.61㎡(약 8,280평)에 지상 5층, 지하 2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고려대를 상징하는 본관을 중심축으로 중앙광장의 오른쪽에는 백주년기념삼성관이 자리하고 있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2005년 지어진 백주년기념삼성관이 고려대 과거 백년을 기념했다면 이번에 준공된 SK미래관은 중앙광장의 왼쪽에서 고려대 미래 천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약 7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유리천장의 하나프라자를 만들어 기존의 대강당 건물과 SK미래관이 하나로 통합되는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이 외에도 최첨단 ICT/IoT기술의 체험과 전시공간, 지열시스템, LED 등 에너지효율1등급 제품과 친환경 제품 등으로 계획하여 고려대 캠퍼스 중심축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기념비적인 건물이 될 것이다.

SK미래관 내부는 비정형적 순환형 동선을 따라 공간들이 배치되어 일률적 반복이 없이 대부분의 공간이 다른 모양과 크



기를 갖도록 계획됐다. 지하 1층은 희망과 새로움을 뜻하는 노란색, 1층과 2층은 열린 공간이자 고려대의 열정을 표현하는 진홍색, 3층은 성장과 조화의 초록색, 4층은 집중과 지성의 파란색, 5층은 창의와 변화의 보라색으로 층마다 주제에 맞게 색상을 부여했다.

고려대 졸업생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는 공간 중 하나가 대강당이다. 이번에 준공되는 SK미래관은 하나플라자를 통해 대강당과 연결된다. SK미래관은 대강당의 옛 추억들을 최대한 복원하여 고려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도록 했다.

IoT/ICT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 구현

SK미래관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구성원 참여형 스마트캠퍼스가 구현된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공간예약/출입관리/재실관리/센서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ICT/IoT 기반 스마트캠퍼스로서 하나의 실험장이자 체험장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예약하고 출입장치에 갖다 대기만 하면 빈 스터디룸을 즉시 대여할 수 있다. 학습과 토론 공간 확보가 매우 쉬워지는 셈이다. 이용 현황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마일리지로 쌓이며 졸업생과 지역주민들도 이용이 가능

하다. 강의실에는 온·습도, 비명 센서가 탑재되어 쾌적한 환경 뿐 아니라 안전도 보장한다. 시스템 구축 사업은 SK텔레콤이 맡았다.

교내 구성원의 연구 기술이 캠퍼스에 적용되는 참여형 스마트캠퍼스의 한 예로 딥러닝 기반의 실내 측위 기술이 있다. 전기전자공학부의 최린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비콘 등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구자기장 신호를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인 1미터 이하의 실내 측위가 가능하며 이를 이용, 실내 지도 안내, 전자출석부 등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실제 캠퍼스에 국내외 최초로 시험 적용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해 'ICT/IoT 캠퍼스 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학내 구성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캠퍼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기술, 예산, 제도 개발·수립을 추진한다.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빈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서 스터디룸 대여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다. 스마트캠퍼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이뤄지게 되고 내년에는 학교 전체로 스마트 캠퍼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교내외 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 허브' 중심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운영한다. 고려대는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허브 사이트(<https://data.korea.ac.kr>)를 최근 오픈했다. 데이터 허브에서 수강 신청 분석, 융합 전공 현황 분석 등 각종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는 학내 주요 데이터 분석 자료를 매달 첫째 날에 학내 구성원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전달하는 기술,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 정책으로 일반화시키는 기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것이 ICT/IoT 기반의 스마트캠퍼스가 된다.

ICT/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구축될 스마트 캠퍼스는 데이터를

모교소식

기반으로 한 참여형 리빙랩을 캠퍼스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며 데이터공유와 접근 그리고 기존 업무의 효율화 등 다각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구현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다섯 개 캠퍼스(서울 캠퍼스/세종 캠퍼스/안암병원캠퍼스/구로병원캠퍼스/안산병원캠퍼스)를 데이터와 ICT/IoT 인프라를 연결 지을 계획이며 최근 부각되는 스마트시티의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들의 성원이 담긴 공간

SK미래관 건립소식이 알려졌을 때 소식을 들은 교내 구성원들과 교우(*고려대는 졸업생을 교우라 호칭합니다)들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다. 약 1,200여 명의 교우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기부자들의 이름은 그룹스터디룸, 캐럴(개인집중실), 지혜의 기둥, 도너스 월 등 공간 곳곳에 명명될 예정이다.

대강당에도 기부자들을 기리는 네이밍(기부자들에 대한 명명 예우)이 이뤄진다. 대강당 리모델링에 성원해준 600여 명 기부자들의 성명이 전 좌석 뒷면에 새겨져 새로이 사용할 학생들과 만난 준비를 마쳤다.

준공식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은 “대학 졸업한지도 30년이 훌쩍 넘었다. 그때의 교정과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듯이 대학의 역할이나 사회에서의 비중 등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그 강도도 더욱 강해졌다. 모바일 기술이 대학의 환경을 변화시켰듯,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그동안 대학의 역할이었다. 그 지식의 처음과 끝 모두가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좀 더 이롭게 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덕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SK미래관이 고려대에서 사회 혁신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의 인재가 필요하다. 전문성은 물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한다. 지식 전수에 머무는 전통적 교육을 뛰어넘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은 이 시대 대학의 사명”이라며 “SK미래관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채워졌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협업, 소통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창의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인재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창의적 인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화합하며, 틀을 깨는 융합을 기반으로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존엄성을 인정받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SK 미래관이 준공됨으로써 고대 구성원들이 전공과 소속의 벽을 넘어 토론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제 이곳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고려대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인 몰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생성된 가치를 사회와 국가에 확산시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중심의 고려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고려대학교교우회장은 “이번에 건립된 SK미래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지식 창출을 위해 특별히 공을 들여 만든 건물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SK미래관은 고려대 캠퍼스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우리 모교가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물로서 고려대 역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QS 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순위

27개 분야 ‘톱 100위’, 국내 사립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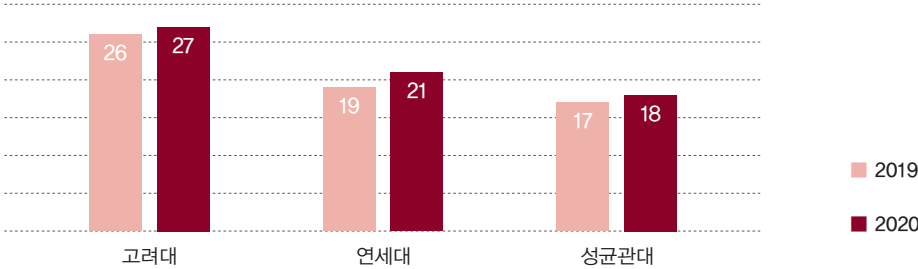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3월 4일 발표한 ‘2020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본교가 4년 연속 국내 종합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공 분야를 ‘톱 100위’에 진입시키며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QS는 인문&예술, 사회과학&경영,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자연과학 총 5개 학문 분야, 48개 학과(전공) 분야별로 500위까지 대학 순위를 매겼다.

본교는 ‘톱 100위’에 2018년 22개, 2019년 26개에 이어 올해 27개로 작년보다 1개 더 많은 전공 분야가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한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인문계열 13개 분야, 자연계열 14개 분야 등 분야별 균등한 순위를 보였다. 이는 본교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100위 권 내 본교의 자연계열 전공 분야 수는 작년과 동일한 14개로 KAIST 11개, POSTEC 5개보다 높은 수치다.

| 주요 종합사립대 100위권 내 전공 분야 비교표 |



학문 분야별로는 ‘사회과학&경영(Social Sciences & Management)’, ‘공학&기술(Engineering & Technology)’,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분야가 4년 연속으로 국내 종합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인문&예술(Arts & Humanities)’는 작년 114위에서 올해 38계단을 경총 뛰어오른 76위에 자리하며 국내 사립대 1위를 기록했다. ‘사회과학&경영(Social Sciences & Management)’ 분야와 ‘공학&기술(Engineering & Technology)’ 분야는 작년보다 8계단씩 오르며 올해 각 43위와 53위를 차지했다.

전공 분야별로는 ‘고고학(Archaeology)’ 분야가 처음으로 50위에 오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해부학&생리학(Anatomy&Physiology)’ 분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위

권에 안착하며 국내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50위권에 진입한 최상위 전공 분야로는 ‘어문분야(Modern Language)’, ‘고고학(Archaeology)’, ‘사회정책&행정학(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경영학(Business & Management Studies)’이 각 46위, 50위, 44위, 49위를 기록했다.

본교는 QS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83위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연속 국내 종합사립대 중 가장 높은 순위다. 11월 발표한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사립대학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후배를 위한 아낌없는 사랑



2019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김재욱) 장학증서 수여식이 11월 7일(목) 오후 7시 LG-POSCO경영관 안 영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엔 경영대교우회 오성호(경영79) 사무국장, 수여자 청평화시장 운영위원회 서광수(경영10) 감사, 소암장학회 조덕희(경영84) 부회장, (주)KCC 심재국(경영74) 상무와 김우중(경영99) 과장, 김근창(상학39)장학회 장진영 기부자, 양승은(경영72)72학번교우회 대표, KPMG 삼정회계법인 최이현(경영97) 상무와 경영대학 장학생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재욱 학장의 인사로 수여식이 시작됐다. 김재욱 학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부자님과 같은 선배님들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지속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이러한 도움을 훗날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끔 학업에 정진해 크게 성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 순서로 장학증서 수여가 이어졌다. 이번 학기 경영대학

에선 총 54개의 장학기금이 마련됐다. △KUBS Dream Scholarship(54명) △미래 장학금(29명) △소암 장학금(12명) △남촌 장학금(10명) △엠엔제이문화복지재단 장학금(4명) △KPMG삼정회계법인 고대교우회 장학금(2명) △AMP 87기 장학금(8명) △양영재단 장학금(5명) 등 모두 174명(중복수해 포함)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수여가 모두 끝난 후 수여자와 장학생이 만찬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이후 내빈 인사말, 학생 대표 감사인사,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내빈 인사말에서 (주)KCC 심재국 상무는 “젊음이 가득한 교정에 들어서니 힐링이 된다”며 “훌륭히 성장해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고 보듬어주는 멋진 청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윤하(경영15) 학생대표는 “대학 생활동안 경영대학 장학금 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과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겠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한 학생들과 수여자들이 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단체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경영대학, 4회 연속 AACSB 인증 쾌거 2005년 국내 최초 전 학위 과정 AACSB 인증 획득

국내 유일 학부/일반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 4회 연속 인증

경영대학이 세계경영대학협회(이하 AACSB,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가 수여하는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의 4회 연속 5년 인증에 성공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학부와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AACSB 경영교육기관 인증을 받았던 고려대 경영대학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지속적으로 인증 갱신이라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4회 연속으로 인증에 성공함으로써, 고려대 경영대학은 세계 무대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국내 유일의 경영대학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AACSB는 미국의 주요 대학 학장들이 1916년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세계적인 명문 경영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표준을 제정해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제인증을 수여한다. 예일대, 컬럼비아대, 보스턴대, UCLA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이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56개국 862개교가 AACSB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 연장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AACSB 심사단이 고려대 경영대학을 방문해 교수진, 학점, 커리큘럼, 연구업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했다. 인증 심사단은 “2020학년도부터 경영학과 내에 신설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려대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경영대학의 우수한 교수진, 학생,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이뤄낸 스타트업 연구원 운영 성과 및 Digital Transformation, SK와 함께 하는 ‘Business for Society’ 프로젝트 등을 우수한 점으로 꼽았다.

김재욱 경영대학장은 “국내에서 학부,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4회 연속 AACSB 인증을 받은 곳은 고려대 경영대학이 유일하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2019년 300대 기업 인사 담당자 학부 평가 12년 연속 국내 1위 및 MBA 평가 7년 연속 국내 1위(한경비즈니스) ▲2019년 대한민국 500대 CEO 국내 단일 대학 단일학과 중 최다 배출(CEO스코어데일리) ▲2019년 Executive MBA 평가 세계 27위, 9년 연속 국내 1위(Financial Times) 등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경영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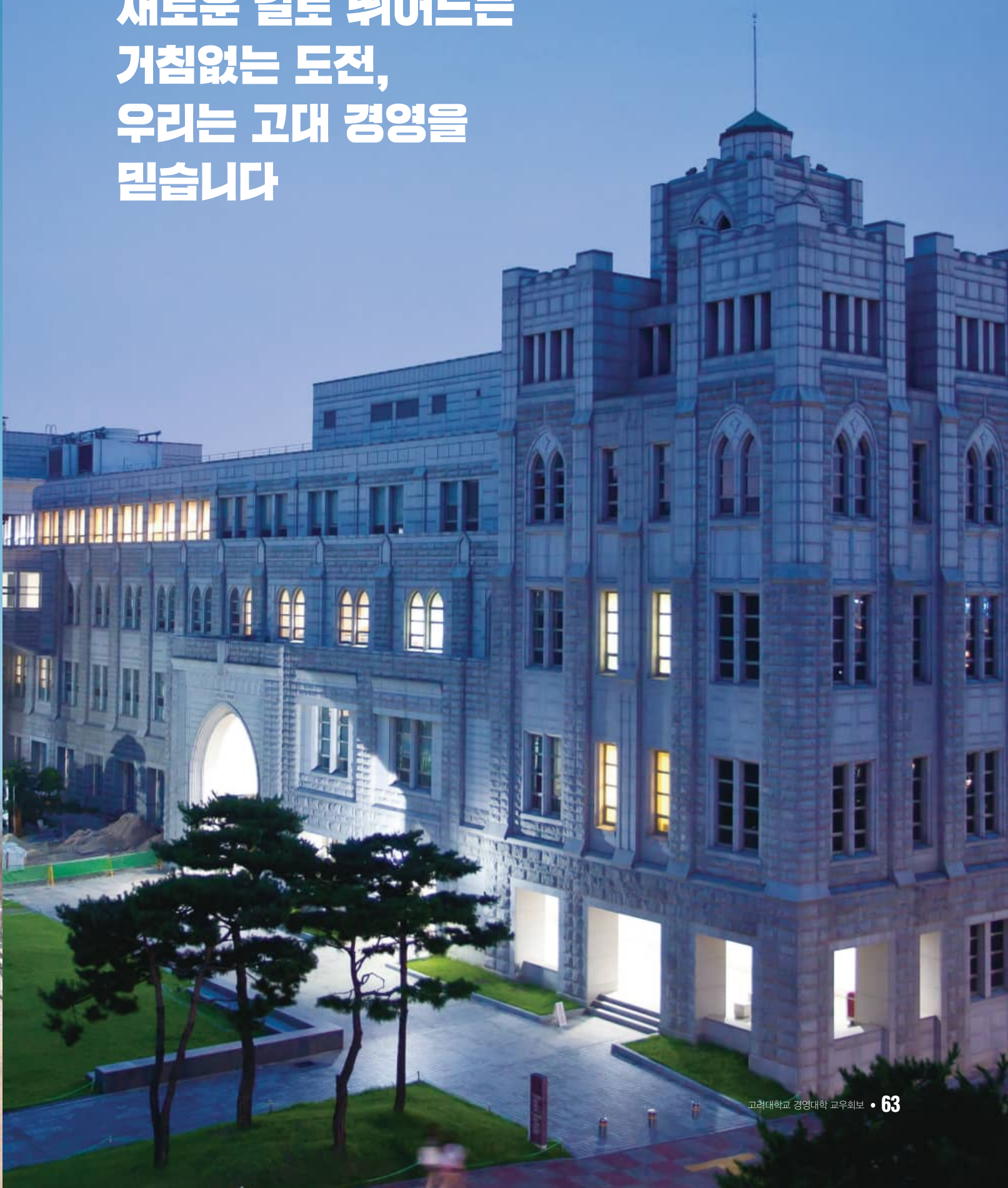
2020년 2월 25일 졸업식

학위수여식은 없지만...

학위 가운 입고 기념 사진 '찰칵'



**새로운 길로 뛰어드는
거침없는 도전,
우리는 고대 경영을
믿습니다**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2019년도 회비 · 분담금 납입 집계 (2019.1.1~2019.12.31 기준)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5,000만원>

74학번 정몽원 회장

<500만원>

57학번 이양섭 명예회장
이상일 자문위원
65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허광수 부회장
67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300만원>

61학번 최오길 자문위원
66학번 박성훈 부회장
70학번 구분능 부회장
72학번 구자열 부회장
김 윤 부회장
허진수 부회장
73학번 구자용 부회장
74학번 송명호 부회장
75학번 박유상 부회장
안영일 부회장
이웅열 부회장
허경수 부회장
76학번 이 범 부회장
77학번 이만득 부회장
80학번 정몽규 부회장
89학번 정의선 부회장

<200만원>

70학번 나완배 명예회장

<100만원>

63학번 어윤대 고문
66학번 황병조 부회장
70학번 이창희 부회장

한대곤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최성진 부회장
황구연 부회장
73학번 김창수 부회장
정기련 부회장
74학번 강호갑 부회장
한호석 부회장
77학번 이재홍 부회장
이철우 부회장
79학번 김 정 부회장
장치평 부회장
81학번 박수근 감사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85학번 황영달 감사
90학번 최창규 부회장
송승민 부회장
92학번 강정훈 부회장

<50만원>

53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55학번 유상옥 자문위원
59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신정차 자문위원
62학번 김병건 자문위원
63학번 조원영 자문위원
64학번 강동식 상임이사
안덕수 상임이사
65학번 김호일 상임이사
66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67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68학번 신준수 상임이사
71학번 이세형 상임이사
73학번 신준식 상임이사
75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학번 손무성 상임이사
임재풍 상임이사
79학번 서학석 상임이사

이동열 상임이사
이상현 상임이사
임영진 상임이사
정몽진 상임이사
80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김윤정 상임이사
변대현 상임이사
81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6학번 강교진 상임이사
정서진 상임이사
88학번 전찬혁 상임이사
89학번 이동섭 상임이사

<30만원>

74학번 이흥기 상임이사
79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추경호 상임이사
86학번 정경모 상임이사

<20만원>

63학번 이연송 자문위원
전현찬 상임이사
67학번 이동우 상임이사
69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이재선 상임이사
이정주 상임이사
70학번 정석균 상임이사
71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학번 최철기 상임이사
74학번 조균환 상임이사
조철래 상임이사
이규범 상임이사
최상태 상임이사
88학번 박진영 상임이사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조명훈 상임이사
97학번 김영일 상임이사

감 / 사 / 합 / 니 / 다

<10만원>

자문위원

58학번 유휘성

70학번 심재중

이사

53학번 이호용

54학번 김진배

55학번 김기인 박은양

58학번 함명돈

59학번 강창석 권상진 김규식

60학번 김선휘 이웅휘

61학번 김길남 박순자 채규학

62학번 송준일 오무환

63학번 김일환 김형덕 이승칠 이영무

64학번 김용운 정제성 최중한 홍인표

65학번 이창윤

66학번 김홍재 신현옥 임혁기

67학번 김용동

68학번 김찬선

69학번 김진석 맹인재 신현웅 안영규

오경석 조현룡

70학번 강명구 이찬중

71학번 권관순 김기산 김동현 김영규

이철영 최광균 최윤도

72학번 강순석 강태준 남덕우 문덕인

원종해 이원창 한충열

73학번 김순배 김영식 김용태 정봉채

천송희 현기춘

74학번 권순철 김경식 김양권 김희종

손정윤 유대성 윤명상 이왕근

임유순 장항덕 조길래 조형용

진영삼 최장현 표정호 한양우

홍석선 홍영호

75학번 김석태 김수관 김우진 배영환

76학번 김덕만 배유현 서윤덕 손봉원

이범호

77학번 이완재 이용모 임동하 홍 운

78학번 경석현 류한호 박원현 박재호

박주병 은민수 이영호 정동창

조정환

79학번 김석호 김용상 김정태 김진호

민경섭 박진호 방용원 서동린

이중훈

80학번 김경남 서 정 배기범 이흥제

정덕인 정백조

81학번 박지수 사택진 유한수 이훈복

장인영

82학번 김성철 장태수 정교수

84학번 김준호 배형근 윤귀만 이순규

이용훈

85학번 김은섭 손순진 임 옥 정병욱

86학번 김기영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89학번 김평국

96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48학번 황현수

51학번 전윤자

52학번 김영섭

53학번 엄기정 조희석

54학번 김동진 이종은 (9만) 이종환 조태규

조해연 태호팔

55학번 권중탁 김강수 김정식 남치현

윤성완 송재목 이득주 이승재

이염래

56학번 김지영 백공용 신명철 윤길림

이기흥 이연상 조해균

57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성균 김재곤

이병길

58학번 남태현 박성업 박성우 사윤진

선환규 엄대성 오덕환 이종철

정지원 천정호 홍종익

59학번 강해홍 권병용 김영식 김주환

노규채 박형문 송창순 양재관

이광조 이기찬 이기흥 이영희

이윤제 이응두 이종호 이창용

한순영

60학번 강대원 구자옥 김광평 김동선

김만용 김영식 노수범 박정자

성윤경 신준호 정성진 정현구

조대작 조시연 최덕형 하정일

한국연

61학번 권천중 김도민 김봉암 김소현

김순구 김윤장 김재태 김택원

박광동 박무용 박성현 박식의

박영엽 박진자 박정자 박화신

신현성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근창 이영자 이 완 이원태

이재영 이재주 이학주 전규수

조 경 조방래 조승자 채창현

최 흥 황인강

62학번 구자웅 김광태 김세영 김중순

김응진 김중진 배영일 백효휘

송기현 안기정 유병하 이순영

이인영 정우진 한상욱

63학번 구재신 김시균 김지창 남 훈

박규환 백선기 오순일 윤익순

정완영 한건수 황공석

64학번 고병선 고충효 김광수 김철주

민선용 박재길 성기남 손인교

유명식 유재현 이경희 이정구

이항선 이형택 조중래 허석도

현봉길 홍현묵 황석희

65학번 김명규 이경찬 박태인 정세종

조희원

66학번 김명진 박민규 박용혁 염수열

오창석 우강용 장철기 전재영

정동준 정순달 정연동 한동석

67학번 이계남 조용건 한기석

68학번 황철수

69학번 광태영 구자삼 박영규 정영목

박병천 제 철

70학번 김기동 박장훈 심동욱

71학번

72학번 고재영 김성욱 (5만) 김영만 김영식

김종현 류병기 박동원 박흥국

엄의식 장석산 전종환 정우성

황순기

73학번 권정덕 김교용 손대정 한진형

홍문순

74학번 김성화 김승길 박영식 박용운

이윤우

75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 훈

77학번 김대철 이찬근

78학번 김석민 김일용 김태완 박범주

박수영 유승식

79학번 권홍국 김영관 류병완 신현길

정운창 최계수 황보평

80학번 김병조 김태현 이봉기 정창식

최윤식

81학번 김한근 남익우 서봉국 차정언

82학번 박영규 박준재 이성우 임준모

최준영

83학번 광병현 김민호 김보선 김용욱

김윤호 김정욱

84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병남 김홍석

	박광구	박병성	서동찬	윤종선
	윤창섭	이창구	이해진	최수곤
85학번	김창수	박승하	박종국	신호섭
	윤상규	하형민	홍용준	
86학번	김좌영	류재열	서동욱	황택현
87학번	이종제	하범중		
88학번	류동엽	하종문		
89학번	김종민	서계원	정운근	
90학번	강승모	김형기	최문규	한상일
91학번	송상원	이상수	임수현	조성일
	홍승모			
92학번	김지용	서동휘	이현경	
	(6만)			
93학번	강준환	김도희	박진홍	윤성재
	황경하			
94학번	김형인	서경덕	양호림	유승경
95학번	이규열	이희윤		
96학번	김하현	박도현	손희중	염종환
	정태원			
97학번	김길분	이민하		
98학번	이재등			
99학번	이동영	윤창영		
02학번	박종현	박태현		
03학번	김시연	오병원	추창화	
04학번	김형태	박준희	송 진	
05학번	김승환	박종환	송현오	이근호
	이현호			
06학번	김현정	이상훈		
07학번	손상엽	양원모		
08학번	박재욱	신재호		
09학번	송명근	유연제	이성혁	정석화
	정해인	한상영		
		(5만)		
10학번	김강민	김명곤	김민정	박신영
11학번	한은경			
12학번	명경미	황지민		

〈학번별 분담금〉	
62학번	500,000
64학번	500,000
66학번	500,000
67학번	500,000
69학번	1,000,000
70학번	1,000,000
71학번	1,000,000
72학번	1,000,000

73학번	1,000,000
74학번	1,000,000
75학번	1,000,000
76학번	1,000,000
77학번	1,000,000
78학번	1,000,000
79학번	1,000,000
80학번	1,000,000
81학번	1,000,000
82학번	1,000,000
83학번	1,000,000
84학번	1,000,000
86학번	1,000,000
87학번	1,000,000
89학번	1,000,000

〈평생회비 30만원〉	
98학번	우종욱
05학번	이우찬
09학번	이한솔
12학번	허종민

학번확인불가(동명인)	
김광희	30,000
김신희	30,000

감 / 사 / 합 / 니 / 다

2020년도
회비 · 분담금 납입 집계
(2020.1.1~2020.3.31 기준)

〈300만원〉		
81학번	박정원	부회장

〈100만원〉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90학번	최창규	부회장
	(익명)	

〈50만원〉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81학번	김연수	상임이사

〈10만원〉		
이사		
63학번	이승철	
75학번	김창경	

〈3만원〉		
55학번	남치현	
56학번	신명철	
60학번	최익호	
62학번	김종순	
63학번	정완영	
64학번	홍현목	
67학번	최종철	
69학번	김영호	
81학번	김용운	
96학번	이명준	
00학번	박 진	

〈학번별 분담금〉	
74학번	750,000
77학번	1,000,000
79학번	1,000,000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의 경영대와 경영대 교우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연회비 목표 16,500,000원
달성 **71%** 실적 11,740,000원

2019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목표 20,00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105%** 실적 21,000,000원

목표 200,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90%** 실적 179,830,000원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총 목표 236,500,000원
달성 **90%**
실적 212,570,000원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